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한·러 차세대 전문가 대화: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일시

2015. 11. 17(화) 14:00~18:00

장소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국제회의장 21층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세부 일정

14:00~14:30 > 등 록

> 개 회

14:30~15:00
 개회사 **노 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이규형** (한려대학(KRD) 조정위원장)
 인사말 **코즐롭스키, 블라디미르 바체슬라보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사회학과 교수)
 사회자 **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Ⅰ 제1세션 Ⅰ

주 제 :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15:00~16:00
 발표 1 **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발표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장)
 발표 2 **러시아 차세대정책 현황: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적 자본 발전'을 중심으로**
 발표자 **아시코프, 일리아 올레고비치** (극동연방대학교 차세대정책과 과장)

16:00~16:10 > 휴 식

Ⅱ 제2세션 Ⅱ

주 제 : 한러 차세대교류의 실재와 협력 확대 방안

16:10~17:10
 발표 3 **러시아 차세대 실태**
 발표자 **쿠릴레프, 콘스탄틴 페트로비치**
 (국립민족우호대학교 국제관계이론 및 역사학부 부교수)
 발표 4 **한·러 차세대교류 사례 - '한러 대학생대화(2010-2015)'**
 발표자 **이형숙**
 (한려대학 기획팀장 /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 토 론 : 협력방안

17:10~17:50
 토론 1 **한국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 차세대정책**
전성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한려대학 차세대분과 간사위원)
 토론 2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청소년정책**
코즐롭스키, 블라디미르 바체슬라보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사회학과 교수)
 토론 3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
벨로우스, 발레리야 비탈리에브나 (국립민족우호대학교 국제협력과장)
 토론 4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
카기예프, 아슬란 마고메도비치
 (우랄연방대학교 총장 차세대정책 고문, 학생연합대표)

17:50~18:00 > 전체 토론 및 폐회

4-ый Форум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СВА

14:00~14:30	➤ Регистрация
14:30~15:00	➤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 Вступительная речь : Но Хёк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NYPI)) ➤ одравительная речь : Ли Гю Хёнг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ДРПК, штат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Самсунг(SERI), экс-посол РК в РФ и в КНР) ➤ Приветственная речь : Козл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ячеславович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социологии культуры и коммуникации, СПбГУ) ➤ Модератор : Хван Чжин Ку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 и координации NYPI)
15:00~16:00	[1-ая Сессия] Тема : Текущая политика по поддержке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и и России ➤ Доклад1 :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Основная политика «5-ого базового план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РК Ким Ки Хон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анализа молодёжи СВА(NYPI)) ➤ Доклад2 :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В основном о докладе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Яськов Илья Олегович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ДВФУ)
16:00~16:10	➤ Кофе-брейк
16:10~17:10	[2-ая Сессия] Тема : Статус проекта по обмену Молодёжи и меры по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Доклад3 :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Курылев,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теории и истории меж 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УДН) ➤ Доклад4 : Примеры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обмена - Фокусировка на пр ограмме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Корея-Россия" в рамках ДРПК(2010-2015) Ли Хёнг Сук (Старший сотрудник в Секретариате ДРП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роф. Унив. Корё)
17:10~17:50	➤ Дискуссия : Мер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Дискуссия1 :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и Чжон Сонг Мин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олодёжным Делах, член-секретарь раб. Группы «Молодёжь» ДРПК) ➤ Дискуссия2 :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оссии Козл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ячеславович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социологии культуры и коммуникации, СПбГУ) ➤ Дискуссия3 : Мер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лодёжи РК и РФ Белоус, Валерия Витальевн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УДН) ➤ Дискуссия4 : Мер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лодёжи РК и РФ Кагиев, Аслан Магомедович (Советник ректора Ураль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юза студентов УрФУ)
17:50~18:00	➤ Общая дискуссия и закрытие Форума

목 차

Korean Version

1. 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3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장)
2. 한·러 차세대교류 사례 - ‘한러 대학생대화(2010-2015)’ 15
이형숙 (한러대화 기획팀장 /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3. 【토론】 한국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 차세대정책 27
전성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 한러대화 차세대분과 간사위원)

Russian Version

1.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Основная политика «5-ого базового план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РК» 33
Ким Ки Хон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NYPI), директор)
2.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В основном о 45
докладе «Молодё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Яськов Илья Олегович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ДВФУ)
3.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65
Курылев,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теории и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УДН)
4. Примеры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обмена - Фокусировка на программе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Корея-Россия" в рамках ДРПК(2010-2015) 71
Ли Хёнг Сук (Старший сотрудник в Секретариате ДРП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роф. Унив. Корё)
5.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и 85
Чжон Сонг Мин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олодёжным Делах, член-секретарь раб. Группы «Молодёжь» ДРПК)

참고자료(References)

1. 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93
2. 2000~2025년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발전(한국어 요약 및 번역본) 132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한·러 차세대 전문가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Korean Version

제1세션
.....



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장

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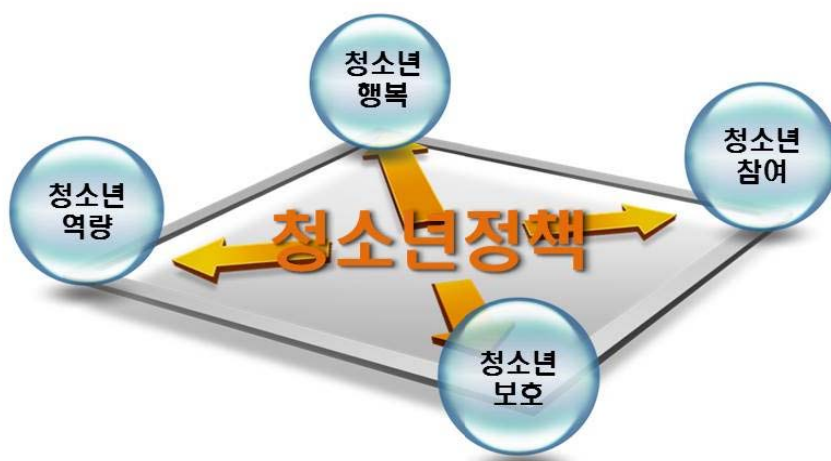
CONTENTS

- 01 서론
- 0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현황 및 과제



01. 서론

01. 서론



01. 서론

- 1 UN 관련 기구, 청소년글로벌포럼 개최
10. 28-30, 2014, 바쿠, 아제르바이잔
- 2 122개국(62%) 국가청소년정책 추진
지난 1년 동안 23개국 새롭게 추진
- 3 독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중앙행정부처 명칭에 청소년 사용
- 4 바쿠 선언 - 지원이 아닌 투자!
국가 및 지역사회 책무성 강화 요청



0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0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주진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85~‘87)’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법 부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소년기본법」 제13조

-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수립·시행 (‘11~‘12)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93~‘97)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98~‘02)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03~‘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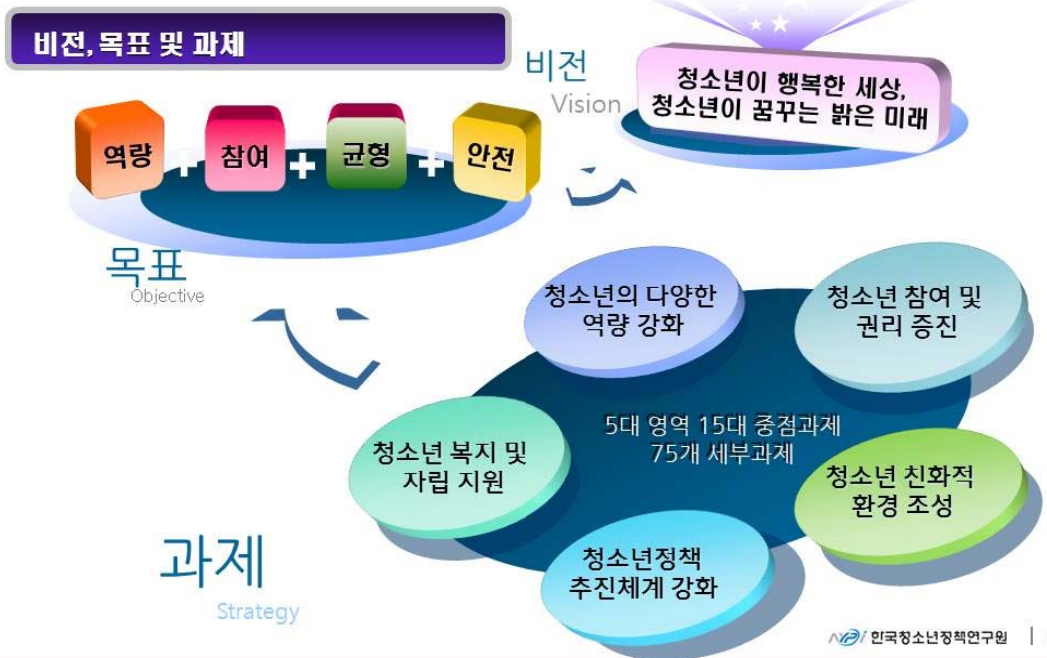
※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11~‘12)

0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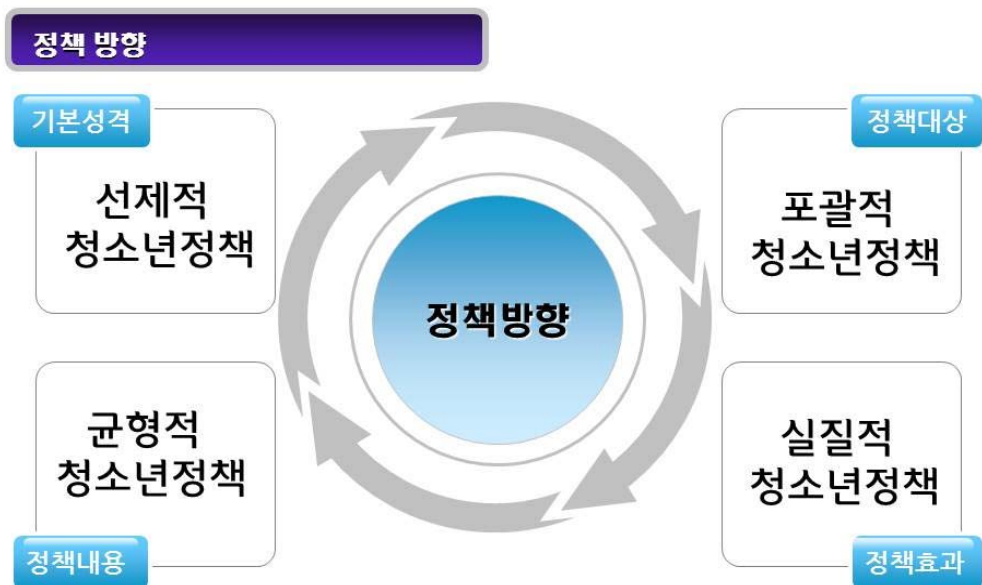
주진 경과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1.8~12월)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및 자문단 운영(‘12.2월~6월)
- 청소년 학계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12.4.5)
-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지역현장 의견수렴 (‘12.4월 ~ 7월)
- 지역토론회 8개 시도 개최(‘12.7월~10월)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기본계획 확정 (‘12.12월)

0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0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0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현황 및 과제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비전 및 목표 – 행복감

- 청소년 행복감에 대해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세계가치조사 결과 검토

- 한국 행복지수 2014년 결과,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OECD 평균 이하



자료: 염유식 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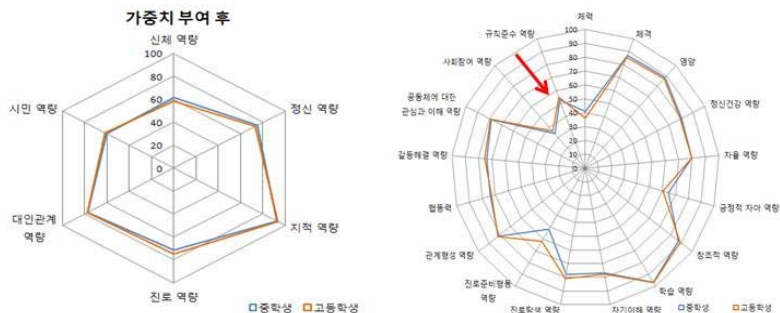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3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비전 및 목표 – 핵심 역량

- 지적 역량 수준은 높으나 사회적 역량이나 신체 역량은 낮은 수준

- KEDI(2013) 학생 역량 지수 시민 역량, 신체 역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김창환 외(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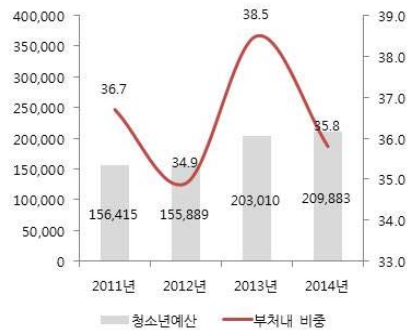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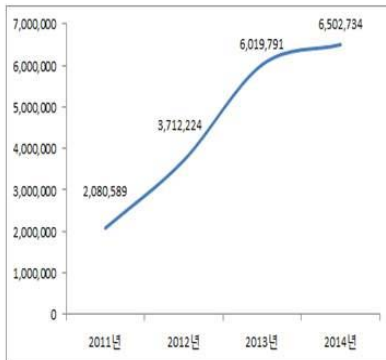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정책방향 - 선제적 정책추진

27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 4년 간 큰 폭으로 증가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증액, 전체 부처 예산 비중은 35% 수준 유지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각 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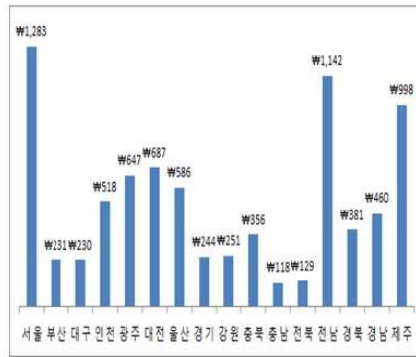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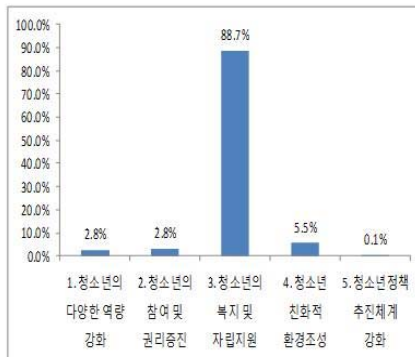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정책방향 - 포괄적, 균형적 정책추진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 총괄조정기능 강화(2015년 2월 개정)

정책 영역 간 예산 배분이나 지자체별 예산, 시설 등 투자 불균형은 여전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각 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제5차 기본계획 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 1 성과 평가 지표 개선
- 2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선제적, 포괄적, 균형적, 실질적) 평가
- 3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 지자체) 평가 병행 필요
- 4 6차 계획 2년 전 평가 수행, 1년 전 기본계획 수립

0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제5차 기본계획 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 1 성과 평가 지표 개선
- 2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선제적, 포괄적, 균형적, 실질적) 평가
- 3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 지자체) 평가 병행 필요
- 4 6차 계획 2년 전 평가 수행, 1년 전 기본계획 수립

Korean Version

제2세션
.....



한·러 차세대교류 사례 : ‘한러 대학생대화(2010-2015)’



이 형 숙

한러대화 기획팀장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한러 차세대교류 사례 ‘한러 대학생대화(2010-2015)’

이 형 숙

한러대화 기획팀장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1. 서 론

20세기 초 세계사의 격변과 더불어 관계가 단절되었던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외교관계 재개 이후 양국 정상에 참석하는 ‘한러대화 KRD포럼’을 비롯한 각종 포럼들과 문화예술분야 교류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수교 25년을 맞이한 2015년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무려 110배 이상 증가하고 인적교류도 연 13만 명 이상에 이를 만큼 양적 확대를 이룬 양국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정의를 이끌어낼 만큼 두터워졌다.

차세대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G20 정상회의를 통한 만남에서 양국 정상에 협력 확대를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교류 확대라는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일반인 사증 면제 및 문화원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2012년에 유엔 결의안을 기초로 “2025년까지 러시아 차세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파워를 매개로 한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고양, 해당국가와의 외교관계 증진, 경제적 진출에 도움을 주는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외교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외교’는 어느새 대학사회에서도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은 ‘반민반관’, 이른바 1.5트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협력기관, 혹은 주체가 되고 있는 듯하다. 대학이야말로 차원 높은 수준의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의 인문적 이해와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고, 모든 외교에는 그러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또한 정치적 변화와 무관한 민간교류의 토대이자 국가 발전의 미래로 불리는 차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관산학’ 협의체로서 <한러대화>의 사무국이 양국의 대학 내에 소재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는 양국 간에 점증하는 협력의 필요성을 토대로 2010년부터 차세대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6개 분야에서 정기적이며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중에서 ‘한러대학생대화’는 지난 6년 간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진행됨으로써 차세대가 친밀감과 기대감을 갖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교류프로그램을 모델로 러시아와 독일 차세대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2. <한러대학생대화>의 구성

1) 성격

- ‘한러대화’를 구성하는 6개 분과 중 ‘차세대분과’의 역점사업이자 지속사업
- 목적 : 향후 한-러 관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양성, 폭넓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들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증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양국 청년들의 실천적 연대와 참여 촉진, 토론 내용을 정리한 합의문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차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차세대 발전에 기여

2) 진행현황

- 2010년부터 5회 연속 개최
(1차: 서울·제주, 2차: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인근, 3차: 서울·강원, 4차: 서울·인천·경기지역, 5차: 칼리닌그라드)
 - * 2015년 7월에는 외교부·코레일 주관 ‘유라시아친선특급’ 사업과 연계하여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에서 차세대교류행사 진행
 - * 2016년 1월말 제6차 한러대학생대화 개최 예정
- 기간: 방학 기간 중 6박 7일 (러시아 개최 시 7박 9일) 혹은 4박 5일
- 구성: 사전 화상회의, 현장교류 프로그램

- 참가 인원: 양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각 20명씩 40명, 초청인사, 임원진 및 진행요원 등 60-70명 규모
- * 2013년 4차 대화는 예외적으로 양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약 80명을 선발하여 진행, 서울 소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30명과 함께 교류 프로그램 진행.

3) 참가자 현황

- 한국 측: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전국 20여 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러시아 측: 모스크바대학교,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모스크바인문대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 발트연방대학교, 북동카프카스연방대학교,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학교, 우랄연방대학교 등 러시아 전역 15개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120여 명 참가
- 전공: 어문학과 지역학 통번역 등 러시아어 구사 가능 전공자 이외에도 국제관계, 예술, 역사, 정치외교,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수학, 물리학, 환경생태공학, 지구환경공학, 컴퓨터공학, 도시환경공학, 글로벌 융합공학, 태권도, 약학 등 다양한 전공자 망라

4)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사진자료 별첨)

- 한·러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사회 각 계층 인사들과 전문가들의 강연
- 한·러 청소년 및 차세대 공동 토론회(전체회의 및 분반회의)
- 초안작성위원회의 및 합의문 작성
- 현장연구(한·러간 역사문화유적 답사, 한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탐구, 대중문화 탐구)
- 문화교류행사

5) 강연 및 토론 주제

- 1차: 세계화와 청년의 역할 및 도전
지속가능발전: 지식기반사회에서 협력 및 소통 증진 방안
한·러협력: 한·러 양국 청년의 협력 강화 방안

- 2차: 러시아와 한국 청년 문화의 주요 경향
 - 지구촌시대 -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역할
 - 민족문화와 세계화의 충돌과 해결/공존의 길
 - 일상의 환경 - 우리 주변의 제도들, 공존의 문제들 - 정치, 경제, 자원 등
- 3차: 세계화와 현대의 민족문화: 문화수출, ‘한류현상’
 - 한국에서 러시아문화 수용 현상, 한·러 양국의 이미지 개선 방안
- 4차: 한러 차세대교류 2020
 - (정치협력, 문화교류, 청년창업, 대도시 생태학)
- 5차: 교육의 국제화: 양국 대학 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 급변하는 시대에 한러 간 신뢰 강화를 위한 양국 청년의 역할

3. 각 회차별 합의문

제1차(2010년)

주제 - 세계화, 신 세계질서, 지속가능발전, 한러 청년교류

1. 『한·러 학생회』를 만들어 공동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청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2. 『사이버 한·러 문화 센터』를 개설하여 양국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열고 관광 및 채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차세대들 간의 교류 증진
3. 녹색 교류: 사례 연구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실천적 연대와 참여 촉진
4. 러시아에서 『한국의 해』를 지정, 한국 역시 『러시아의 해』를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 『지역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교류 분야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
 - 『한·러 청년캠프』를 개최하여 단순 친선 교류뿐 아니라 공통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
 - 『한·러 양국에 대한 TV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양국에 대한 관심 제고
5. 한국과 러시아 대학생들의 교육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 고등교육 평가 및 인증제도 통일화
 - 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제2차(2011년)

주제 - 청년문화의 주요 경향, SNS의 역할, 민족문화와 세계화, 일상의 환경

1. 더욱 다양한 정부지원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십 기회 확대
 -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행사 진행에 참여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지원금, 장학금, 비자신청 과정 단순화, 통합 학점교류 및 학위 인정 등 정부지원 확대
3. 양국 청년 및 전문가들의 교류협력 확대, 특히 과학기술분야 한러 합동 프로젝트 추진
4. 『한러 학생회』 설립 추진 및 역할 수행
 - 한러관계, 행사 및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술적 웹사이트 관리
 - 더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타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러대학생대화’ 참여 기회 제공
 -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회 및 축제 기획
5. 대학 차원 공동 과목 강의, 교수진 교류, 한러 학술동아리 개설 등을 통한 학술교류 추진
6. 문화 및 역사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박물관과 도서관의 전시품 및 도서 교류
 - 어학공부에 필요한 도서와 사전의 개정 증보
 - 현존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한 홍보방안 확대

제3차(2012년)

주제 1 - ‘세계화와 현대 민족문화’

1. 대학생연합회 설립 및 구성
 - ‘한러대학생연합회’ (KRSU)로 명명
 - 제3차 KRD포럼 본회의 기간 중 출범
 - ‘한러 대학생대화’ 참가 학생들과 한러 관계에 관심을 지닌 청년들이 조직위원 및 구성원으로 참여
2. 활동사항

- 정기적으로 포럼과 강연, 답사 등을 개최하여 상호 문화이해 증진 도모
- 기존 양국 KRD 홈페이지를 활용한 한러 대학생연합회 사이트를 개설하고 SNS를 활용한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관심 제고, 지속적 교류를 위한 회원 간 네트워크 구축
- 분기별로 ‘한러대학생대화’ 인터넷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사무국의 검토를 거친 후 발송(여행기, 사진, 학생 에세이, 영화 및 서적 감상평 등)
- 보다 폭넓은 독자층 확보를 위하여 러시아 내 한국학 교수들과 한국 내 러시아학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

주제2 - ‘대학 간 협력‘

1. 일주일 간 진행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마련
 - 홈스테이 형태로 진행하며 한러 영화의 밤, 언어강좌, 전통요리교실, 문화탐방, 현지 학생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
2. 양국 대학 간 스포츠교류 진행
 - 대표팀 간 시범경기와 문화탐방이 포함된 단기 프로그램
 - 문화체험 및 언어교육이 포함된 2-3주 간 합동훈련 프로그램
3. 학생들의 작품을 활용한 패션행사 진행
4.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출국 전에 제공하여 유학생할 준비를 원활하게 하는 사전교육 성격의 ‘버디 프로그램’ 도입
5. 대학축제 기간 중 기존 문화홍보공간을 확대하거나 신설
6. 양국 도시들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한러 대학생대화’ 사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시회 개최. 대학축제 이외의 기간에는 양국 문화원이나 한러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장소 등에 전시. 이를 위해 양국 대사관과 문화원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7. 각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의 사진 및 영상물 공모전 개최. 선정된 작품에 반영된 지역에 대한 문화체험과 견학프로그램 개발

제4차(2013년)

주제 - ‘한러 차세대 교류 2020’

한러 간 협력 활성화, 양국 대학생 간 상호이해 증진, 양국 간 문화교류 기반 구축, 민족문화

보존 및 대중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 그리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년행사 개최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 논의 및 아래 사항들에 대한 합의

1. 정치국제관계

-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해 대학생 교류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
- 유학생 및 학생 교류프로그램 참가자의 비자 간소화 절차를 추진

2. 경제

- 양국 정부와 경제단체 후원 하에 공동청년창업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 양국 청년창업과 창업노하우 공유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
- 한러 차세대 벤처기업인 공동 포럼 조직 및 운영

3. 문화예술

- 정보교류를 위한 문화교류센터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관련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문화 관련 청년창업을 촉진
- 양국 전통 민족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 청년층을 위한 문화정보정책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촉구

4. 환경

-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양국 공동연구 및 교육 활동 진행
- 한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관련 전시회 개최, 생태 조사, 생태 관광 추진

제5차(2015년)

주제 1 - 교육의 국제화: 한러 대학 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1. 양국 대학 홈페이지 번역

- 각국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서로의 언어로 번역, 교환
- 정보는 유학생에 관한 분야로 한정(학비, 비자관련 정보 등)

2. 버디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 방식의 버디프로그램이 지닌 한계(지원자의 무작위 선정 및 연결, 취미와 관심사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 개선

- 개선 방안으로서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름, 나이, 지역, 취미, 선호하는 분야, 전공 등) 구축 제안
3. 홍보강화
 - 양국 간 교환학생 박람회
 - SNS를 통한 홍보
 - 양국 문화원 등의 채널을 통한 홍보
 - 교육기관 간 자매결연 확대
 4. 복수학위제 실시
 - 학업 및 교외활동에 있어서의 특별한 경험 기회 제공
 -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5. 자연과학, 이공계열 학생들의 공동연구를 위한 센터 설립
 -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 교육 연수 등 학생 유치

주제 2 -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러시아 간 신뢰 강화를 위한 양국 청년의 역할

1. 정보 제공을 위한 채널 구축
 - Web 2.0: 기사 및 블로그 형식의 양국 관련 정보제공
 - K-pop 등 양국 문화 콘텐츠 수록
2. 고정관념을 타개하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
 - 외국어 토론대회, 패션쇼, 사진전, 세미나, 강연 등
 - 양국 인기 종목을 선별해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마련
3. 양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 언어교육
 - 양로원 방문 등 기타 자원봉사활동
4. 한러 국제학생회 창설
 - 모의 학생 대표회의 개최

4. 결론 - 지속발전을 위한 차세대교류의 전망과 과제

21세기 지구촌(global community) 형성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이라는 기존의 유보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구성원이자 각각의 지역사회가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차세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인으로서의 역량과 덕목을 각별히 요구받고 있는 이 시대의 차세대로서는 다문화정체성을 자기화하는 일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폭넓은 의사소통 경험과 창의적인 사유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러 대학생대화>를 조직하고 진행하면서 타자의 문화에 대한 차세대의 높은 관심과 각종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 지향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과 관련된 성향의 변화(전공자의 경우 러시아 관련 분야로의 진로 모색,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이후 러시아어 수강 혹은 전공과의 접목 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러대학생대화’의 사례뿐 아니라 여타 국가 간 차세대교류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고 관련국가 차세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사고하는 주체, 즉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지속성을 지닌 프로그램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들어 국가 간 교류협력과 국제개발 등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현 시기의 교류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문화적 호기심과 친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자신들이 살아갈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실행기관(이 경우에는 ‘한러대화’)에서는 상대국 언어와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인문적 유대 강화, 교양의 함양, 참가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 차세대 문화의 변화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가자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들 중 유의미한 제안을 선별하여 실현 가능해지도록 조정하는 과정도 요구되고 있다.

Korean Version

토 론
.....



한국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 차세대정책



전 성 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한려대학 차세대분과 간사위원

한국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 차세대정책 토론문

전 성 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한러대화 차세대분과 간사위원

먼저 「한·러대화」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이러한 뜻 깊은 포럼에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후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연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 유일의 청소년분야 국책기관이다. 그리고 「한·러대화」는 한·러 대통령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10년 이후 양국 정상에 참여하는 ‘KRD 포럼’ 및 문화와 예술, 정치와 국제관계, 경제와 통상, 교육과 과학, 언론과 사회, 그리고 차세대 등 6개 분야 별 소통을 위한 교류행사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분야는 그 동안 한·러 양국이 매년 교차 주최하는 ‘대학생대화’를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러·독대화」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자리는 그 동안 양국 대학생들이 추진했던 자발적인 욕구의 도출과 공유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을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차세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최초의 ‘한·러 청소년전문가 간 대화’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론자는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가능성과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차세대정책은 「2000-2025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로 대표된다. 이 정책은 2025년까지 예상되는 차세대인구 천만 명의 감소에 기인하는 문제에 차세대정책에 의한 ‘인적 자본의 증진’으로 대처하고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 인적 자본’이란 14세-30세간의 인구로 구성된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고려한 소득창출 잠재력과 그들이 받은 교육 및 획득한 자격에 대한 평가이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차세대의 인적 자본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보수적·혁신적·목표지향적(강제적)

사회·경제적 발전의 옵션과 연계하여, 수동적·보상적·적극적 등 세 가지의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차세대의 연령범위는 14세-30세이며 이를 10세-14세,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로 구분하여 각 코호트 별 및 연계선상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이 정책은 차세대 인적 자본개발 환경조성과 국내·외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설정한 장기적 모델(2000-2015),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 또는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포괄하는 복합적 모델, 연방·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든 부처와 기관을 포함하는 부처 간 모델, 공간 지향적 지역 간 모델,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주체 모델, 다양한 세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세대 간 모델, 기타 국경 간 이동을 고려한 외적 측면들이 고려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주요사업은 고용 시스템 구축,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적응, 건강한 생활양식, 범죄예방, 재능있는 차세대 지원, 무형식 및 비형식·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직업교육의 수준 향상, 직업성향에 따른 교육체계 구축 지원, 창업지원, 정부-민간 협력관계 발전 등이다.

다섯째, 이 정책의 주요예산지출방향은 무형식과 비형식교육,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보조금, 단체보조금, 프로그램발전을 위한 연방주체들에 대한 보조금, 인프라(지원센터) 건설 등이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교육과학부(Ministry for Education & Science)의 국가아동·청소년교육정책실(Department of State policy in the sphere of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이 ‘2000-2025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을 추진하는 연방청소년국(Federal Agency for Youth Affairs: FAYA)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지자체 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2년 설립된 러시아청소년협의회(National Youth Council of Russia(NYCR))가 41개의 전국 및 지역 간 청소년조직과 32개 지역청소년협의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Rossmolodezh 등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러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러시아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2000-2025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한·러양국 간의 협력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러시아는 차세대의 인적 자본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차세대집단 중에서 특히, 18세-24세 간 인구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능력을 성취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자국의 사회·경제 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 동안 13세-18세 인구집단 지원에 중심을 두었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 효과적인 상호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도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연령 별 프로파일의 분석과 이에 근거한 정책추

진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미 연령대 별 혹은 연계추진을 실행하고 있는 러시아와 경험과 평가를 공유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도 후기청소년(또는 청년)에 보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미 추진 중인 포괄적인 부서 간 협력은 물론, 지역 간, 다양한 주체 간, 세대 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넷째, 한·러 양국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 상에 다양한 카운터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정부·민간·지역·지자체·전문기관(단체) 간에 보다 다양한 전문가교류협력기회의 개발과 확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정책과 서비스를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정책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함께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지역,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분 등 관련 기관(단체)의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인식과 정책추진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시나리오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상황은 어떠한가?

Russian Version

1-ая Сессия
.....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 Основная политика «5-ого базового план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РК»



Ким Ки Хон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NYPI), директор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в Корее: Пятая основная программ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Ким Ки Хон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ONTENTS

01 Предисловие

02 Содержа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5-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задачи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01. Предисловие

01. Предисловие



01. Предисловие

- 1 Проведение Глобального форума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организаций ООН, Баку, Азербайджан 28-30 октября 2014 г.
- 2 Прове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в 122 странах
- 3 Германия, Швеция, Дания, Франция и т. д.
Употребление слова «подростки» в ведом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 4 Декларация Баку- это не поддержка, а инвестиция! Требование укреплени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местного общества



02. Содержа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5-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02. Содержа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5-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Обоснование продвижения программ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13-й статьёй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о молодёжи основная программ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должна разрабатываться каждые 5 лет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мер по улучшению молодёжных проблем('85~'87)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основные программы (с первой по четвёртую)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на общем ведомственном фоне

13-я статья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о молодёжи»

-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устанавливать основной план дл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и каждые пять лет

Четвёртая основная программ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и поправка) установление 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11~'12)

1-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и('93~'97)

2-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и('98~'02)

3-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и('03~'07)

4-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и('08~'12)

※4-я базовая программ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справленная и дополненная) ('11~'12)

02. Содержа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5-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Процесс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 Базов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11.8~'12)
- Управле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ой 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группо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ят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12.2~'6)
- Проведение экспертной дискуссии для сбора мнений от научных кругов по изучению молодёжи и из регионов('12.4.5)
- Сбор мнений от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и в регионах('12.4 ~ 7)
- Проведение дискусс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8-ми городах и провинциях('12.7~'10)
- Утверждение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Ассоциацией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12.12)

02. Содержа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5-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02. Содержа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5-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02. Содержа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5-о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её задач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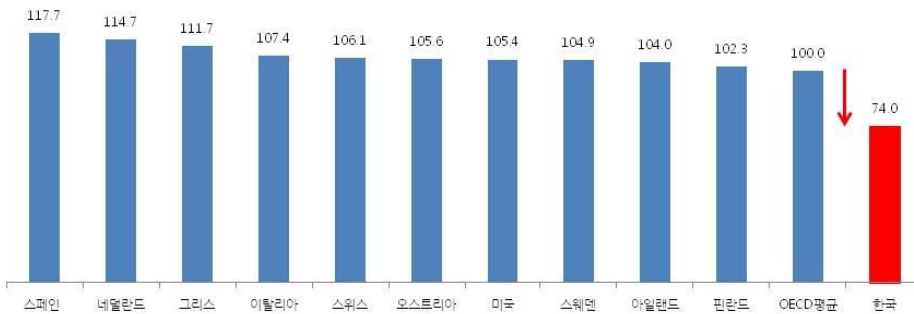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её задачи

Видение и цель- Счастье

- Рассмотр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счастья (индекс счастья) у молодёжи, подростков и детей в Корее и результата Всемирного обзора ценностей

- Результат проведённого в Корее опроса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индекса счастья в 2014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уровень счастья в семьях, отношениях с друзьями и личн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ниже среднего значения среди стран ОЭСР.



Данные: Ём Ю Сик и д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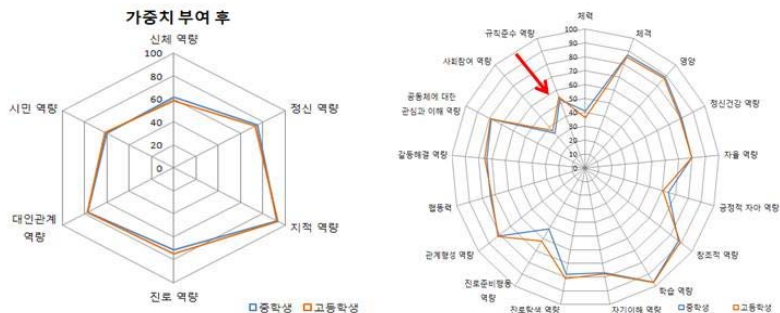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3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её задачи

Видение и цель- ключевой потенциал

- Уровень умствен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высок, но социальная и физическ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низки

- Данные KEDI (2013) показывают недостаток у молодёжи студенческ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 физи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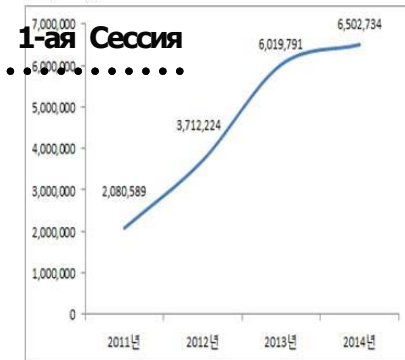
Данные: Ким Чанг Хван и др.(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её задачи

Направление политики - продвижение предупреждающей политики

- За прошлые 4 года объём общего бюджета 27 организаций центр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езко увеличен
-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также увеличен объём бюдже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семьи и женщин, являющемся руководящим ведомством и доля бюджета общих ведомств сохранена на уровне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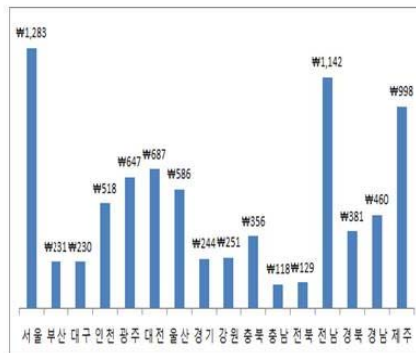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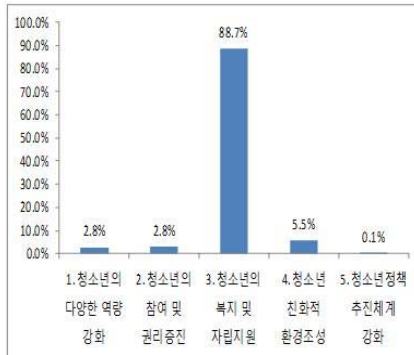
Данные: центр анализа и оценк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план проведе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центр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аждого год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её задачи

Направление политики - продвижение комплексной 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й политики

- Совет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заменён на Комитет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Укрепление функций комплексного контроля (поправка в феврале 2015-го года)
- Сохраняется дисбаланс в распределении бюджета между категориями политики и между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объектами, включая инвестиции



Данные: центр анализа и оценк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план проведе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центр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аждого год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её задачи

Задачи по улучшению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ценки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1

Улучш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оценки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задач

2

Оценка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ведения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превентивная, комплексна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ая, реальная)

3

План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централь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4

Осуществление оценки за два года д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6-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е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 один год раньше

03.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её задачи

Задачи по улучшению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ценки 5-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Сейчас

Цель

Выделение

Выделение бюджета по годам, оценка создания людской и матер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оцесс

Оценка сбора мнений, участия молодёжи, уровня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и молодёжи

Подсчёты
(ключ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Высокий коэффициент
несчастья (12.5%)
(*11 World Values Survey)

Как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среди стран ОЭСР (6.9%)

Самый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31 балл)(IEA ICCS 2009)

Как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среди стран ОЭСР (46
баллов)

Russian Version

1-ая Сессия
.....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В основном о
докладе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Яськов Илья Олегович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ДВФУ

Доклад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В основном о докладе :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Яськов Илья Олегович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ДВФУ

Глав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документом, определя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являются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далее – ОГМП-2025), которые утверждены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ноября 2014 г. № 2403-р.

Этот докумен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зрабатывался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го вниман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орон. В каждом из федеральных вузов (а их 10 в России) проводи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проекта «Основ...», причем в обсужде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ёж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молодые лидеры,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отвечающие за реализацию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регионе. Итоги обсуждений были учтены в финальном документе.

«Основы...» определяют молодёжь как население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Напомню, ООН относит к молодёжи категорию молодых людей от 15 до 24 лет. ВОЗ и ЮНИСЕФ используют термин «подростки» для тех, кому от 10 до 19 лет, «молодёжь» — для тех, кому от 15 до 24 лет, а также термин «молодые люди» — для тех, кому от 10 до 24 л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лодёжь в России «несколько старше» молодёжи мира.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4 году проживало более 34 млн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что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24%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онизив возрастную планку, государство бы сократило существенно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но, к счастью, пошло другим путе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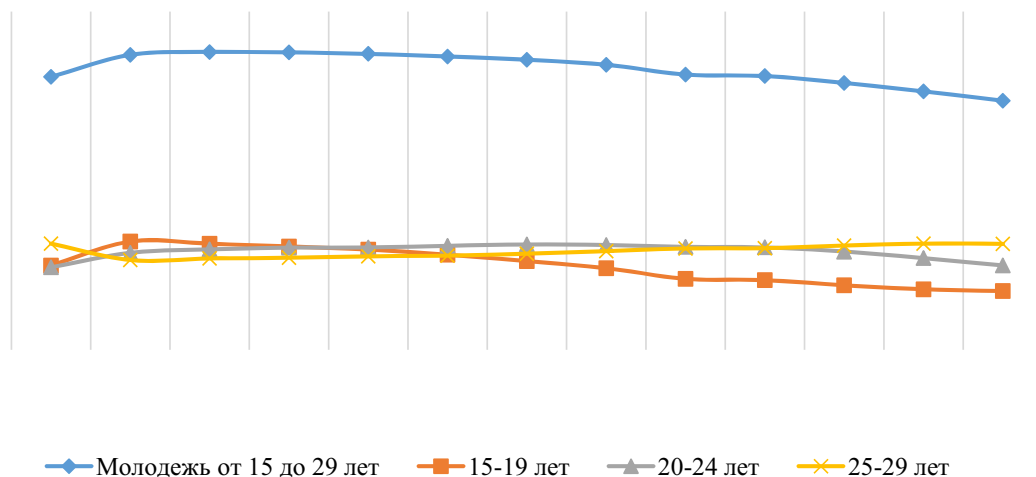
«Основами...» определены приоритеты, ориентируясь на котор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руктуры прилагают усилия для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ежи. Их 6. Кратко можно их описать так:

- Воспитание толерантной и гуманной молодежи;
- Образование;
-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 «Социальные лифты» для молодежи;
- Молодые семьи;
-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Каково же состояние молодежи в России? Как мы уже сказали, молодых в России 34 миллиона. Наибольшая абсолютная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ёжи в возрасте 14–30 лет (более 1 млн чел.) проживала в 2014 году в Москве – 2 305 тыс. чел., Республике Башкортостан – 1 690 тыс. чел.,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 1 225,7 тыс. че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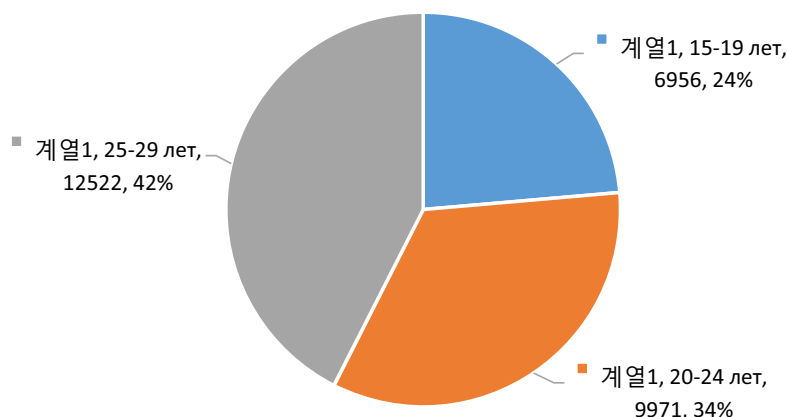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ь концентрируется в городах. Так, в 2014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ёжи в городах России составила 27,4 млн чел., а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7,1 млн чел. Причем, в городах и сёлах в 2014 году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преобладала старшая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 25–29 лет – 9,6 млн чел. и 2,8 млн чел.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ёж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2010 по 2014 гг. сократилась почти на 3 млн чел., а по прогнозам к 2025 году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ёжи может сократиться до 25 млн чел.



Динамика численности молодеж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89-2014 годах (тыс. человек)

Возрастная структура молодёжи представлена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доля молодёжи верхн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25–30 лет в 2014 году составила 42%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молодёжи, около 34% молодёжи приходилось на возрастную группу 20–24 года и 24% – на самую молодую возрастную группу 15–19 лет



Возрастная структура молодёж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4 году (%)

В ближайшие двадцать лет численность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может сократиться на 16 млн чел. Прогнозируемая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ёжи, вступающей в трудоспособный возраст в 2006–2025 гг., возместит убыль рабочей силы только наполовину.

В структуре молодёжной рождаемости в России в 2014 году преобладали матери в возрасте 25–29 лет – на них приходилось 55% рождений. На матерей более младших возрастов: 20–24 года – приходилось 37% родившихся.

Несмотря на положительны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тенденции, возрастная структура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продолжает ухудшаться – сокращается доля людей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и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возраста. Например, доля 20–29-летних женщин (активный репродуктивный потенциал) составляет 7,3%,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а по прогнозным оценкам сократится до 5% к началу 2025 года. Наиболее интенсивно сокращение женщин репродуктивных возрастов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до 2021 года.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молодёжи в России приведет к росту диспропорци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способных воспроизводить и развивать материальный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ны, снижению объемов подготовк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с постар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возникнет опасность серьёз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нагрузки на трудоспособное население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молодёжь), обострение проблемы выплаты пенсий и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повышение нагрузки на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дним из решений назревающей проблемы является повышение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через модернизацию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10 лет в Росси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нтерес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Есл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нулевых годов траекторию «11-й класс – вуз» выбирало около 66% школьников, то сегодня около 44% молодёжи идёт получать профессии после школ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 что почти 60% из них (по данным, собранным в 2014 году) трудоустраиваются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щий контингент обучающихся п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ставляет 5,6 млн человек, из них 2,9 млн человек обучаются по программам бакалавриата, 0,2 млн человек – по программам магистратуры, 2,3 млн человек – по программам специалитета.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бюджетных мест по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в регионах инженерным и техн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 сокращаются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и гуманитар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дготовки.

Однако, получившие образование молодые люди не всегда сразу могут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и это проблема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и, но и всего мира.

В России безработица молодёжи превышает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населения. По итогам обследований населения по проблемам занятости, в среднем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в возрасте до 24 лет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в феврале 2015 года составил 15,8%, в том числе среди город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15,0%, среди сель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18,0%.

Одной из форм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молодёжи является работа в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ах.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осуществля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Молодёжной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далее – МООО «РСО»),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240 тыс.

участников из 72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ботающих по 6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ому, педагогическом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у, сервисному, профильному, а также отряды проводников.

В летний трудовой семестр 2014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осмодромов «Плесецк» и «Восточный»; жил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Академический» (г.Екатеринбург); объектов атомной отрасли (Ленинградская АЭС, Ростовская АЭС, Нововоронежская АЭС-2); облагораживании сеноман-аптских залежей Бованенков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конденсатн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в Ямало-Нене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Также в рамка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ОАО «Федеральная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в 10 филиалах компании было трудоустроено 7 800 студент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роводников.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проектов 2014 года стало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офильн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ОАО «Россети»; сформирован отряд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ью 1 500 обучающихся из 76 профиль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2014 году Федер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осуществлён сбор и обобщение более 900 практик и проектов, содействующ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ю молодёжи, реализуемых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молодежны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пр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создан Сове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В состав указанного Совета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Росмолодёжи,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молодёжны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науч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программ развит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ден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повышения роли студенчества в обеспечени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вышения роли студенчества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города, региона, страны.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17 университета в 2014 году, около 200 в 2015.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ют субсидию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их программ в размере до 2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коло 400 000 долларов).

В рамках выстраивания системы работы с талантливой и инициативной молодёжью, формирования её жизненных планов и карьерных устремлений, Федер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проводится конкурс молодёжных проектов.

Конкурс направлен на вовлечение молодёжи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в твор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вышение её граждан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Всего в номинациях Конкурса учреждены 81 грант по 250 тыс. рублей, 100 грантов по 150 тыс. рублей, 505 грантов по 100 тыс. рублей, 565 грантов по 50 тыс. рублей на общую сумму 114 млн рублей.

В 2014 году всего поддержан 1 251 проект на общую сумму 120 млн рублей.

Каковы же ценностные ориентиры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В результат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большинства институтов социализации (семь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др.),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ой системе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произошла коренная переориентация молодёжи от предпочтения нематери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 материальным.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жизненной ценностной ориентацией является стремление достичь успеха, сделать карьеру (37%), стать богатыми, чтобы жить, как хочется (20%). Практически только каждый седьмо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тремится к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15%). Альтруизм распространен среди менее 7% опрошенн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Примерно треть молодых людей считает,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им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Вместе с тем, другая треть молодых людей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человек должен сам позаботиться о себе, о своей старости и прилагать много усилий, чтобы заработать много денег и обеспечить св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В целом, молодёжь старше 20 лет, уже работающая,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более, чем другие группы молодёжи,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успех и благополучие, ратует за стабильность, отстаивает нравственные принципы.

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преобладают традиционные ценности, такие как здоровье, ценность дружбы, общения, семьи и детей, любви. Затем идут ценности успешного построения карьеры,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и други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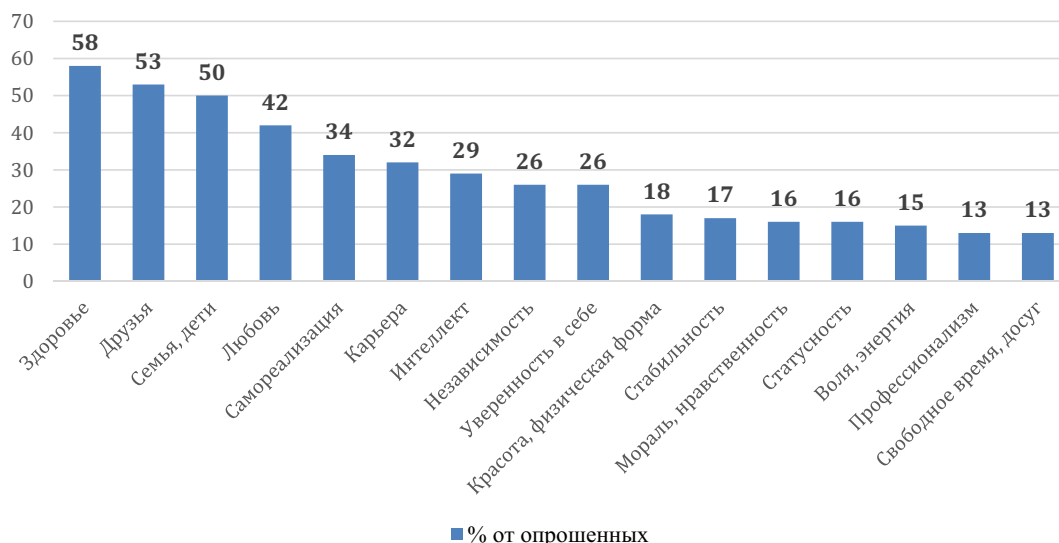


Рисунок 6. Ценности жизни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

Иерархия ценностей меняется вместе с измен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месте с тем, в системе ценностей человека остается неизменной ценность семьи.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она весьма высока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россиян и доля респондентов, ставящих наличие семьи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иерархии ценностей, за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увеличилась почти вдвое (с 34% до 64%), в основном среди лиц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25 – 34 года¹.

Особенности ценност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семье и детям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определяются достаточно устойчивыми тенденциями: сохранением высокой значимости семьи и детей для большей части населения.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такие как создание прочной, счастливой семьи,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занимают прочные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в структуре

¹ Ценности, приходящие и уходящие с возрастом. База данных ФОМ.
<http://bd.fom.ru/pdf/d24cpiusv11.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11.2014)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аций молодых россиян наряду с такой ценностью, как достиж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го достатка. Так, в выяснении иерархии ценностей,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были выделены как «очень важные» (более 50% ответивших).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ответивших (93,5%) назвало главной семейной ценностью «любовь к детям, их воспитание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ю в них»².

Ключевой задач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является воспитание патриотично настроенной молодёжи с независимым мышлением, обладающей созидательным мировоззрение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знаниями, демонстрирующей высокую культуру, в том числе культуру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способ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наце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траны, народа и своей семьи³.

Одним из значимых показателей формирова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и ценностей у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является патриотиз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как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общего воспит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истема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сех субъекто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родвижение указанных ценностей.

Систем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азноуровневое (федеральный уровень, рег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муниципальный уровень,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его основных субъектов, имеющее устойчивые связи и отношения, построенные на принцип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обще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ализу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олодёжную политику,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едённых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акций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150 тыс. акций в течение 2014 года.

² Гольцова Е.В., Лещенко Я.А. Факторы социальной среды как детерминанты брачности и рождаемости//СОЦИС, 2010, №2, С. 125-130

³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11.2014 N 2403-р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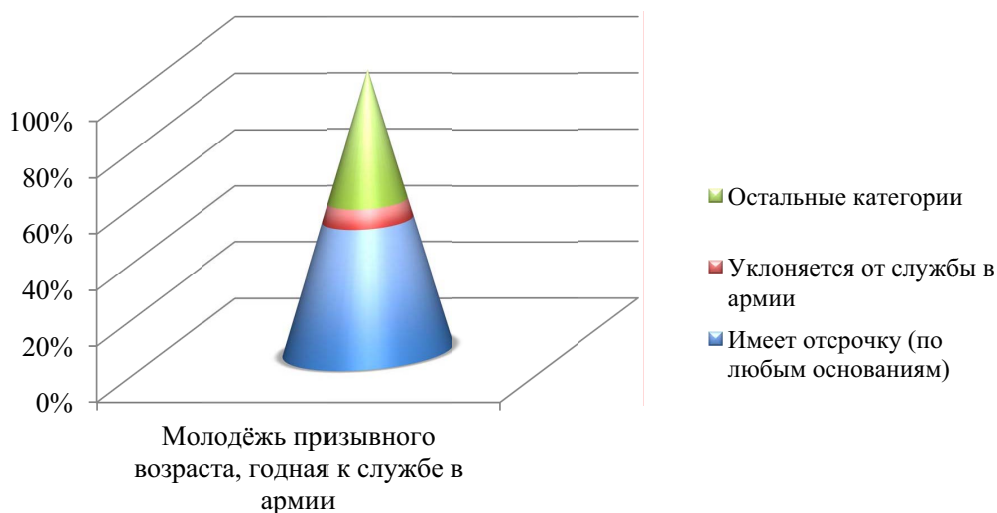
Всероссий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й – 35%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молодёжи в стране. Проводятся грантовые конкурс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молодёжные форумы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поиск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т.п.

По данным,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ализующ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олодёжную политику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4 году, более 1,2 млн чел., являются молодёжью призывного возраста, годной к службе в армии,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0,3% от численности муж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⁴.

Из них 56% имеет отсрочку от службы в армии (по любым основаниям), а 8,1% уклоняется от службы в армии.

⁴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данные не включают –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Республику Коми, Республику Крым, г. Севастополь, Чечен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Алтайский край, Республику Удмуртия, Новгородскую область,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Оренбургскую область,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Москву.



Молодёжь призывного возраста, годная к службе в арм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 координирующей рол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и Росмолодёжи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ты эффективные меры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ёжной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волонтё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реждений,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вовлеч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ёжи в доброволь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Ф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4,0 тыс. единиц. Деятельность да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хватывает порядка 3,0 млн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ли 9,6%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молодёжи, проживающей в России⁵.

Ежегодно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водя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сероссийские,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тему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ь.

В Росс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молодёжные патрули (добровольные молодёжные дружины – далее ДМД). Всего в 67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действует более 2,5 тыс. добровольных патрулей, дружинниками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более 60,0 тыс. чел.

⁵ Данные мониторинга Росмолодёжи, проведенного в 2014 г.

Согласно проведённому Ассоциацией волонтерских центров ⁶ исследованию развития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характер мероприятий в сфер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ыгляди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социальное;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 33%;

спортивное и пропаганда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 23%;

помощь тяжелобольным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бездомным, инвалидам и пожилым людям – 16 %;

помощь дет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 детям-сиротам – 10%;

экология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 7%;

культура, наук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 5,5%;

помощь бездомным животным – 3%;

поиск людей, спасатели МЧС и охран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 2,1%;

добровольче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при религиоз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 0,4%.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добровольца в России составляет 23 года.

Молодёжное самоуправл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о молодёжными коллегиально -совещатель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пр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двух уровн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В своём большинстве региона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носят названия «молодёжный парламент» (пр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и «молодёж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На уровн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молодёжное самоуправл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о ученическим и студенческим самоуправлением. Молодёжные парламен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 75 субъектах РФ и 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в 10 субъектах. В процентном соотношении это составляет 88,2% и 11,8%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⁶ Создана в 2014 году при участи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и 26 волонтерских центров, действующих на базе российских ВУЗов.

Молодёж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ставлены в 55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в 30 субъектах. В процентном соотношении это составляет 64,7% и 35,3%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оличество реализованных законотворческих/нормотвор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региональных молодёжных парламентов – 328.

В среднем на 75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д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данные молодёжные структуры, приходится по четыре реализованных законотворческих/нормотвор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ы.

На укрепление здоровья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направлены: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1.11.2011г. N 323-ФЗ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Многогранность проблемы ЗОЖ обуславливает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й подход к её решению и консолидацию усилий различных ведомств.

Так, в ведении Мин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чти 300 тысяч различ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уммарной мощностью 15 млн 280 тыс.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более 7 млн человек, из них почти 3 млн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различных спор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возможность молодёж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занимать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проведение чемпионатов, первенств, кубков п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у виду спорта,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в спорте высших достижений.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проводит системную работу по ряду магистральных вектор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неучеб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я занятий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проведение различ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конкурсов,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я правильного питания.

Среди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й 2014 год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мотр-конкурс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реднего и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лучшую организацию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й работы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порта среди

федераль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недр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тов к труду и обороне» (далее - ГТО).

Кроме того, более 9,5 млн школьников в 2014 год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езидентские состязания», а «Президентски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собрали более 5,5 млн участников.

В 2014 году начата работа в области внедрения норм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тов к труду и обороне» (ГТО) посредством проведения регуляр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баз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ТО – это норматив физ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яется через его возможность выполнить некоторый перечень физических упражнений.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норматива гражданин получает значок.

Мы уже говорили о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ях, остановимся на семьях подробне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прежнему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семья с одним ребенком. Среди молодых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которых оба супруга моложе 30-ти лет: 80% – однодетных, 18,2% – с двумя детьми, 1,8% – многодетных. 30% молодых семей – бездетны. В целом, из 41 миллиона российских семей однодетные семьи составляют 34%, семьи с двумя детьми – 15%, а многодетные – всего 2,7%⁷.

Тем не мене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оссийская семья стала традиционно однодетной, положительным моментом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у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молодых родителей проявляется желание иметь больше детей.

Данны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опросов показали, ч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молодёжи убеждена, что в семье должно быть два-три ребёнка. Из опрошенных молодожёнов двоих-троих детей хотели бы иметь 84%⁸. Не менее половины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огут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в пользу третьего ребёнка. Сегодня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ать это желание комплексом мер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⁷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аспект.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д редакцией О.А. Копцевой-М., 2010-. С.38.

⁸ «Вестник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6-7 за 2008 год.

Хотя ценность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и в России падает, мотив рождения второго и последующего ребёнка зачастую носит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Так, по данным выбороч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Репродуктивные намерения россиян»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следующие мотивы: чтобы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бёнок не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одиноким; чтобы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бёнок не вырос эгоистом; желание иметь ребёнка другого пола, желание супруга иметь ещё ребёнка.

Также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мотив (4 место из 14 мотивов): «с двумя детьми больше вероят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в старости».

Причем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мотивы имеют несколько больш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женщин, чем для мужчин, но на мужчин большее влияние, чем на женщин оказывает сильное желание супруги иметь второго ребёнка. В то же время мо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различия в мотивации рождения второго ребёнка между полами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да и оценка предложенных мотивов невысока⁹.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социальная норма детности, оставаясь низкой для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имеет устойчивую тенденцию к сближению у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и прежде всего в молодёжных когортах. Наряду со снижением репродуктивных установок в более молодых поколениях, наблюдается откладывание браков, допустимость безбрачия.

Не менее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развития молодой семьи с детьми являю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её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Благополучие молодой семьи в определённой степени зависит от размера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дохода между её членами, поскольку высокая степень неравномер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доходов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ухудшению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климата в семь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одного супруга от другого и к другим негатив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которые могут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семейный союз.

В этой связ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экономическую устойчивость молодой семьи.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направлений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Ф я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молодежи, оказавшей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⁹ Аналитический отчет по итогам выбороч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репродуктивных планов населения.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opulation/demography/

По данным ФСКН на 2009 году в России 2–2,5 млн человек употребляют наркотики и психоактивные вещества. В основном это молодые люди от 19 до 24 лет.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ООН, процент росси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овлечённого в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опиатами, в 5–8 раз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стран ЕС. Ежегодно в России появляется не менее 80 тыс. новых наркоман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остаются сред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и социальные деструктивные тенденции. На учёте в органах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остоят 302 молодёжных неформальных движений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ью более 10 тыс. человек. Половину из них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считают «склонными к агрессивным действиям».

При этом речь идёт только о выявл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По оценкам МВД России, сегодня в стране порядка 50–70 тыс. скинхедов и свыше 15 тыс. молодых радикальных экстремистов. 98 тыс. подростков, входят «в группы антиобщественного, экстремистского и иного характера».

В стране остаётся тенденция анти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явлений экстремист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Проводимы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анализ факторов, воздействующих на проблемы экстремизм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случа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неприязн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конфликтов провоцируются не верующими, а, как правило, национально-экстремистскими течениями марги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в рамках той или иной религии, а также определённы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лами, использующими в своих целях религиозную символику и риторику.

При этом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нетерпимости наблюдается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16–17 лет. Она в большей мере подвержена агрессивности, эмоциональным вспышкам и спонтанным действиям.

Как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так и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для улучшения профилактики преступлений,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антиобще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и реализуютс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е планы работы, содержащие комплексы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странение причин и условий,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асоциальному поведению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МВД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2014 года в Росс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сокращение на 8,2 % (с 56 927 до 52 285) количества преступлений, совершённы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и или при их соучастии.

Также была отмечена продолжающаяся с начала 2014 года тенденция к снижению всех категорий уголовно-наказуемых деяний, совершаемы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и: тяжких (- 6,7 %), особо тяжких (- 3,8 %), средней тяжести (- 8,7 %), небольшой тяжести (- 8,6 %).

В структуре таких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преобладает распитие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запрещённых местах (более 30 тыс.); более 13 тыс. - эт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в обла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более 8 тыс. - наруш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запрета курения табака на от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Мелкое хищение и мелкое хулиганство находятся в пределах 4 тыс.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анным Планом мероприятий выполняется мониторинг состояния работы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детского суицида среди обучающих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же в Росси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работе с инвалидами.

За последние 4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далее – Программа)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инклюз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в почти 6 тыс.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Эти условия обеспечивают безбарьерный доступ ребят с ОВЗ в здания, оснащ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пециальным, в том числе учебны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м, компьютер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о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рекционной работы и обучения детей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в развит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школах организациях обучается 482 235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 программам среднег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учается около 30 000 человек, программам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10 325 студентов.

Для таких студентов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одействуют в их дальнейше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 заключение скажем, что именно непрерывный мониторинг соци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молодежи помогает принимать правильные решения

для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Для того, чтоб развернуть имеющиеся негативные тренды государством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по изменению ситуации.

Russian Version

2-ая Сессия
.....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Курылев,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теории и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УДН

Доклад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ОБЛИК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Курылев,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теории и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УДН

Происходящие в последние 25 лет в России процессы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се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изменили 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политическую жизнь общества, но и обыде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людей о смысле и ценностях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бытия. Изменилось понимание сути жизненного успеха, целей и средств их достижения, не только исследователи, но и обыватели все чаще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исходящие процессы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й эрозии общества. В полной мере эти процессы затрагивают и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и. Если в 1990-е гг. молодые россияне формировались на переломе эпох, то нынешнее поколен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в основном «первый плод» социаль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последних 15 лет. Поэтому вопрос о том, как себя чувствует современная молодежь, какая она, к чему стремится, представляет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Сегодняшняя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ежь может 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ся тем общим, что присуще для россиян в целом и определяться тем особенным, свойственным только этому поколению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соотношении со спецификой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то особенное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определяется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ми ориентациям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торых обуславливает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жизн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и ориентиров, норм социального поведения.

Вместе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выбора сфер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современная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ежь приобрела и ряд проблем социального и духовного плана.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по своей сут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роблемы не только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но и общества в целом. Происходит кризис в душах молодых людей. Система

прежних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и ориентиров утрачена, а новые – пока не выработаны. Эти проблемы,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заимосвязаны и исходят из объективных процессов, протекающих в мире - процессов глобализ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урбанизации и т.д.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ни имеют свою специфику, опосредованную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и проводимой в отношении молодёж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ой.

В числе таких проблем – снижение духовности и нравственности, форм девиантного поведения, безработица, социальное расслоение и другие. Реальностью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стал кризис процесса духовной соци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и, одним из проявлений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ает углубляющийся разрыв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уничтож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памяти, когд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может оказывать дей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воспитание молодежи в духе традицио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ценностей и патриотизма. С началом XXI в. начала набирать силу новая волна неформ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молодежи, которые исчезли было с распадом СССР. Духовный вакуум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заполняют идеологии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экстремист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радикальных религиозных сект.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о становлением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молодежи являются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ими, но и общемировыми.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для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на наш взгляд, являются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й сферой. Процесс 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происходил и протекает в условиях ломки «старых» ценностей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системы ценностей и новых соци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условиях активного насаждения и подмены основ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тандартами общества потребления, происходит воспитание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не как гражданина, а как простого потребителя тех или ины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То есть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навязываются приоритеты земных интересов над нравственными и религиоз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а также патриотическими чувствами. Наблюд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к дегуманизации и деморализации содержания искусства, подмене норм ценности высокой культуры усредненными образцами массово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культуры. Это, а также отсутствие четк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и и объединяющей идеологи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консолидирующей

общество, недостаточное внимание к культурному развитию населения закономерно приводит нас к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На фоне мировоззренческой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молодёжи,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и негативного влияния СМИ (формирующих «образ» субкультуры), непрекращающейся экспансии массовой коммер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саждения стандартов и психологии общества потребления, происходит примитивизация смысла человеческого бытия, нравственная деградация личности и снижение ценности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Идет размывание ценностных основ и традиционных форм общественной морали, ослабление и разрушение механизмов культурной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угроза сохранения самобытност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снижение интереса молодежи к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традициям.

Указанные факторы в сочетании с процессами дифференциации и материального расслоения общества, возникшего при переходе к рыночным отношениям закономерно привели к расширению зоны десоциализации, маргинализации и люмпенизации молодёжи.

Они стимулировали асоциальные и противоправные формы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ёжи; развитие контркультуры в содержании молодёжной субкультуры; стремление к участию в неформальных молодёж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усил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агрессивности, рост экстремизма в молодёжной среде. В условиях напряж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и сложно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и, все обозначенные проблем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 развитии молодёж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деструктивными силами для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в России 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очередной «цветной революции», чего справедливо опасаются российские власти.

Говоря об облике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отметим, что согласно аналитическому докладу «Молодежь новой России: образ жизни и ценностные приоритеты», подготовленному Институтом социологии РАН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Фонда имени Ф. Эберта в РФ, «Современную молодежь можно разбить на ряд групп согласно их жизненным притязаниям. Первый тип можно условно назвать «*семейными*» (13%). Это молод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хотят и считают, что им по силам создать прочную семью и воспитать хороших детей. Вторая группа – «*труженики*» (17%) – это та часть молодежи, которая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им по силам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стижную и интересную работу,

заниматься любимым делом. Третья группа – «*предприимчивые*» (20%) – это россияне,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они в силах добиться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бизнеса, посещения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достиж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го достатка. Четвертая группа – «*гедонисты*» (10%), молодые россияне, которы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ссчитывают иметь много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и проводить его в св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молодежи (19%) составляют «*максималисты*», которые рассчитывают достичь успехов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Существует также группа «*карьеристов*» (6%) – это молодежь, которая полагает, что ей по силам достичь результатов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жизни, но не стремится жить в св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или быть самому себе хозяином. Следующая группа – «*отчаявшаяся*» молодежь (5%) – не видит в себе сил достичь тех или иных успехов. Наконец, восьмая группа – «*тщеславные*» (1%) – рассчитывают стать знаменитыми, сделать карьеру и иметь доступ к вла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нализ устремлений современной молодежи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 группах россиян в возрасте от 17 до 26 лет, различающихся своими жизненными целями. Но одно для них главное –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молодежи безусловными остаются ценности семьи и работы в той или иной вариации: когда работа желаемая и интересна или когда он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ичь материаль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Говоря о молодёжной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среде, конечно же,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и её определённы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черты. Современная молодёжь в целом настроена весьма патриотично, верит в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Высказывается за продолжение перемен в сторону повыше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страны, созд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прав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на хочет жить в великой стране,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своим гражданам, уважающей их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Молодёжь легче адаптируется к нов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она стала более рациональной, прагматичной и реалистичной,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стаби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созидательный труд». Она имеет гораздо большую свободу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и, образцов поведения, спутников жизни, стиля мышл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воим сверстниками 20-30 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Russian Version

2-ая Сессия
.....



Примеры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обмена
- Фокусировка на программе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Корея-Россия“ в рамках ДРРК(2010-2015)



Ли Хёнг Сук

Старший сотрудник в Секретариате ДРР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роф. Унив. Корё

Доклад

Примеры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обмена

- Фокусировка на программе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Корея-Россия" в рамках ДРПК(2010-2015)

Ли Хён Сук

Старший сотрудник в Секретариате ДРП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роф. Унив. Корё

I . Предисловие

В течение 25 лет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вновь восстановлены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еуле, завершив тем самым долгие перерывы связей, наполнялись различны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и культур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 от проведения ряда форумов (включая Форум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ДРПК) и культурных фестивалей до представлений всех видов искусств и программ по обмену. Прошло уже 25 лет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За это время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достигли количественного роста: товарооборот увеличился в 110 раз, а количество взаимных посещений достигает в год 130 тыс. чел.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укрепились, в 2008 году они вышли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 уровен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сентябре 2013 года главы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на поля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20»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целью расширения горизонт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вух стран предложили ключев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и среди них особо выделили политику расширения молодёжного обмена двух стра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ы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б взаимном упразднении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и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чреждении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здать основу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гражданских конта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молодёжного обме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я же разработала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и РФ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базируясь на Резолюции ГА ООН.

Термин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уже успел прижиться в студенческих кругах, как одна из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арадигм, нацеленной на прямые контакты с зарубеж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посредством «мягкой силы»; улучше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государства; укреп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ой атмосферы для выхода бизнеса на рынок и. т.д. В таком положении ВУЗ стал представлять себя, как субъект ак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необходимый партнёр в детальном исполн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новой парадигмы, так называемый 1.5 трэк, то есть «част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анал». На площадке ВУЗа можно найти культурную и гуманитарную трактовку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силий во имя укреплен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ружбы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и философские обоснования таких усилий,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иметь любые вид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ВУЗ - это основа гражданских обменов, которая не зависит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это теплица, в которых вырастают главные персонажи будущ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Именно эта философия послужила предпосылкой учреждения Секретариа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науч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механиз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ах двух стран.

ДРПК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на основе взаимно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регулярн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молодежны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бизнесом и культур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После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ДРПК с присутствием глав двух стран в 2010 году, ДРПК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новой эффективной площадки для открытого диалог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и экономики, и стал важ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обсуждения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Хотелось бы особо отметить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ботах ДРПК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проводившийся с 2010 года ежегодно и перекрёстно в России и в Корее, стал семей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ДРПК. Кроме того,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положительно повлиял на рождение подобных молодёж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ак внутри Кореи, так и в рамка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диалог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российско-германским механизм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II . Текущее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1. Основ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 Ключевое и устойчи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одна из шести рабочих групп ДРПК)

- Начиная с 2010 года, открывался 4 года подряд по принципу перекрёст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в обоих странах

(1-ый диалог: Сеул, Чечжу; 2-ой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 соседние районы; 3-ий – Сеул, Канвон; 4-ый – Сеул, Инчон, Кёнги; 5-ый – намечен на январь 2015 года в городе Калининграде России.)

- Отбираются по 20 студентов и магистрантов с каждой стороны и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2. Цель

- Подготовка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управлять будущим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 Развитие контактов и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через разнообразные и насыщ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общения

-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практическ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и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целях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 Вклад в активизацию контактов молодых люде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водится общая дискуссия и на основе протоколов дискуссии составляется текст

соглашения, которое затем поставляется на отчёт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3. Тема лекции и дискуссии

- 1-ый диалог: Роль и вызовы молодёжи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и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ры по укреплению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2-ой диалог: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молодёжн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 Эпоха «глобального села» - роль Интернета и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SNS)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 Столкновение между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и глобализацией. Пути решения и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ты уделял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и мор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при обсуждении путей достижен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 3-ий диалог: Глобализация и современ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культурный экспорт, феномен /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ная волна», приняти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Корее, способы улучшения имиджа России и Кореи.
- 4-ый диалог: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е общение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2020»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креа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молодёжи, экология мегаполиса)
- 5-ый диалог: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я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пыт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4. Участники и ВУЗы

-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ключев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и част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толицы и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горо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и города Ульсан(UNIST), Институт по глобальной конвергенционной инженерии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Ёнсе, Магистратура устного и письменного переводов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кук и т.д.
-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15 ключевых федераль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магистратур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такие, как МГУ, СПбГУ, МГИМО, РУДН, РГГУ, ДВФУ, Северо-

Кавказ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овосиб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т.д.

- Специальность участников: самая разнообразн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 не только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устно-письменный перевод, политолог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регионоведение, но и все виды гуманитарной науки(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экономика), фундаментальная наука(математика), естественная наука(экологическая инженерия, геоэкологическая инженерия, городская инженерия), глобальная конвергенционная инженерия, менеджмент, таэквондо, фармацевтика и т.д.

5. Основная программ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яснения будут с показом фото-материалов)

- Лек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 время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с выдающимися деятелями общества различных сфер: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дипломатия, культура, экология России и Кореи

- Общая дискуссия молодёж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и и России: пленарное собрание и групповые дискуссии

- Заседание членов комитета по составлению текста соглашения и подготовка соглашения

- Практ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посещение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касающихся истории двух стран, посещение осно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учение природ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т.д.)

-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знакомство с культурой в течение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препровождения (по группам),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и выражение внимания и познание взаимных культур.

III . Соглашение с 1-го по 5-го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ДРРК

1-ый(2010г.)

Тема : «Глобализация, новый мировой порядок,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о, молодёжный обмен РК и РФ»

1. Интенсификация молоде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Кореи при помощи соз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общих семинаров.

2.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ов при помощи открытия «Виртуально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качеств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диалога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аз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туризме, найме и проч.

3. Развитие взаимосolidарности и поощрение участия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при помощи исследований случае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вижений в области «Зеленого развития».

4. Для развития дружбы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и и корейскими студентами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следующи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опыта.

- Объявить в России «Год Кореи» , в Корею «Год России» и прове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 Детализировать сферу обменов путем установления побратим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органами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 Откры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лагерь» и созд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не только для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но и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общих проблем.

- Создать телепрограмму о России и Корею и пробуждать интерес зрителей к двум странам.

5.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следующие проекты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молодеж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бменов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 Предложение унификации оценок и признания сертификатов Вузов.

- Предложение упрощения процедуры оформления студенческих виз

2-ой(2011г.)

Тема :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молодёжной культуры, роль интернета 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и глобализация, проблемы региона»

1. Создани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совместных молодежных програм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 обеих стран, а именно:

- Стажировки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опыта работы
- Программы, предоставляющие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и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а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волонтерские программы
- Активное привлечение студентов к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ю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х как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14 и 2018

2. Дальнейшая всесторонняя поддерж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наших стран программ студенческого обмена посредством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типендий, упрощ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получения виз и посредством унификации стандартов образования(оценок и дипломов).

3. Предлагается создание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подразумевающ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тудентами и экспертами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 частност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4. Создание студенческо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ассамблеи, выполняющей следующие функции:

- Разработка и продвиж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вебсайта, посвящ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 на котором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рабочих вакансиях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вести трансляция живых новостей из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россиян и корейцев 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снащен ссылками на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 Продолж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текущего диалога в более широком масштабе с участием студентов различ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из мн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в частности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грамм обмен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5. Развитие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овмест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обмен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создание студенческих клубов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6. Проведение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а именно:

- Обмен экспонатами и документами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очных проектов между музеями и библиотеками
- Обмен учебниками и словарям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 Увели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мена о событиях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и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ей

3-ый(2012г.)

Тема1 : «Глобализация и современ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1. Создание студен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 название: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е студен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РСО)
- Открытие КРСО приурочить к проведению 3-го Форума «ДРРК»
-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и участниками объединения станут студенты, принимавшие участие в предыдущих «Молодёжных диалогах», а также молодёжь,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уются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2. Деятельность КРСО

- Ежегод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ие как форумы, лекции, экскурсионные поездк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молодёжью Кореи и России
- Создание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ы КРСО на базе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х сайтов Форума ДРРК и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к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ети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ников объединен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Ежеквартально создавать и рассылать электрон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екретариатов Форума ДРРК(путевые заметки, фотографии, студенческие статьи и обзор современных фильмов и книг)
- Для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а получателей данной рассылки информация направи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корееведам в Росси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руссистам в Корею

Тема 2 –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1.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нед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жду студентами обеих стран

-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такие элементы как проживание в семье, ночь корейского и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языков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еды, экскурсии и встречи с мест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2.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Проведение показательных матчей между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ми командами

- 2-3 нед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вместных тренировок, в ходе которой такж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знакомство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и языков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3. Организация на студенческом уровне мероприятий, связанных с модой обеих стран

4. Создание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кать молодёжь из корей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ВУЗов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адаптации к местной среде.

5.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ей культуры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обеих стран с созданием тематических павильонов, посвященных Корее и России.

6. Проведение фотовыставок,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ят современные виды городов обеих стран, а также фотографии «Молодёжного диалога». В период между фестивалями фотографии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в культур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 значимых местах. Для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потребуется поддержка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дип.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обеих стран.

7. Проведение фото- и видео-конкурсов, посвященных корейским местам в России или российским местам в Коре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с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экскурс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этим местам.

4-ый(2013г.)

Тема : «Молодёжный обмен РК и РФ 2020»

1. Полит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 Заключить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б упрощенном порядке оформления и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для студентов, участвующих в программах обменов.

-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молодёжных программ и обменов.

2. Экономика

- Организовать бесплатные семинары по созданию и ведени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проектов для молодёжи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союзов и ассоциаций.

-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на совм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молодёжные бизнес-проекты.

- Создать площадку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молодёжных проектов.

3.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 Сформировать единую систему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станет импульс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новых проектов.
- Интенсифицировать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реал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роектов и программ, направленных,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Оказы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сфер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ной культурно-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4. Экология

- Провести совм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сфере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ключая обмен опытом, технологиями.
- Поощрять провед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х экспедиций, эко-туров, студенческих выставок, посвящённых вопросам экологии.

5-ый(2015г.)

Тема1 :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я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пыт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1. Перевод веб-сай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беих сторон на рус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и

- перевод информ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сайт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оссийскими студентами, и наоборот
- переводить только информацию актуальную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тажировки, стипендии, визовый режим, академическая мобильность

2. Создания единой базы данных,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граммы товарищ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 между местными и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buddy-programme)

-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тудентов и менторов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на случайной основе
- в будущем мы считаем необходимым согласовывать тандемы по интересам, хобби, предпочтениям
- создание базы данных с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б участниках программы

3. Продвиж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мобильности

- ярмарка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реклам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продвижение через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 расширение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4. Программы двойного диплома

- получение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личного опыта

-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5.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ознакомительная практика

- презентация студентам потенциальных вакансий

- открытые семинары и экскурсии в компании-партнеры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воты на ваканси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6. Организация центра координ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ых проектов

- создание общей базы исследований

- привлечение студентов в рамках обучения

Тема2 : «Роль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укреплении доверия в эпоху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от вызовов к возможностям»

1. Созда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портала

- Web 2.0 (способность сайта к интерактив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разработка актуального контента, ведение блогов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подборка фактов о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е

2. Провед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развенчания стереотипов

- языковые олимпиады, фэшн-шоу, выставки, семинары, лекции

- товарище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опуляр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3. Разработка волонтерских программы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ультуры

- обучение языку носителями

- социальная работа

4. Созд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совет

- провед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й и форумов

IV. Перспективы и задачи молодёжного контакта в целях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пути раздумья о развит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рейского типа в 21-ом веке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молодёжн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обретаю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В частности, на фоне формирования «глобального села» молодые люди являются не только главными игроками будущего, но и являются достойными уважения членами сообщества, в котором мы живём. К тому же нужно исходить из понятия о том, что молодёжь – это важные спутники на пути к развитию и к постоянному поддержанию органической силы жизн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сообществе.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требует у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и мораль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ы,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еред молодёжью стоит задача привить себ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работать в себе такие качества молодёжи предстоит пройти процесс расширен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глубокого размышления.

Организовывая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РПК, мне удалось повстречаться с раз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В процессе встреч я могла убедиться в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нимания молодых людей к «чужой» культуре,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в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бщения; в их разном жизненном укладе,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м на будущее.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как они на глазах меняли свой выбор по будущей карьере, пожелав связать её с Россией.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чтобы такие механизмы, как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диалог» и другие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ли при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олодёжи двух стран и развиваться самим устойчиво,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имат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и оказа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в целях реализации обсуждённых мер и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участ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в дальнейшем необходимо дополнять контент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ётом изменения реальности и уровня гуманитарн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и созд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студентов, желающих посвятить себя сфер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Russian Version

Дискуссия

.....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и



Чжон Сонг Мин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олодёжным Дела
член-секретарь раб. Группы «Молодёжь » ДРРК

Дискуссия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и

Чжон Сонг-мин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олодёжным Дела
член-секретарь раб. Группы «Молодёжь» ДРПК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Форум ДРПК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поднятых вопросов.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был учрежден в 1989 году. Деятельность да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целена на проведение различных теоре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анали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связанной с вопросами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Кор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научный центр, занимающийся вопрос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Форум ДРПК – это диалоговая площадка, созданная на основан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ов РК и РФ. Форум начал свою работу с 2010 года с участием глав обеих стран.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в рамках ДРПК проводятся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ледующим шес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Полит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Экономика и торговля»,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аука», «Молодежный диалог». В частности на площадке ежегодн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диалога», который по очереди проводится в Корее и России, достигнуты существ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этому является тот факт, что традиция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диалога» перенята российско-германским Форумом «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иалог».

Я придаю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сегодняшнему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му диалогу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молодёжным делам, поскольку такой диалог проводится впервые, и он призван найти практические и научные подходы для поддержки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х молодёжных программ, отличающихся от прежних, системностью и плановостью. Я изучил молодёжную политику России, и,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получ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хотел бы поговорить о том, ка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существуют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по поводу тематики обсуждений.

Молодеж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докладе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Ключевое содержание данного доклада – это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сокращ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олодежи на 10 млн. человек к 2025 году путем укрепл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Человеческий капитал молодежи – оценка воплощенной в 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молодежи потенциа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приносить доход с учетом врожден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и таланта ее членов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14-30 лет), а также полученного им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иобретенн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Данная политика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особенности.

1.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олодежи представлено 3 сценари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пассивный, компенсирующий, активный), в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лежат сценар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целевой).
2. Под термином молодежь понимаются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при этом политика формируется под каждую возрастную категорию, которы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четыре: от 10 до 14 лет, от 15 до 19 лет, от 20 до 24 лет, от 25 до 29 лет.
3. Представлена долгосрочная модель (2000-2025), нацеленная на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олодежи и укрепл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как внутри страны, так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Эта модель комплексная, охватывающая все факторы,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развитие (ил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сохранен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олодежи,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в нее включаются вс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 ведомства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ях,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многосубъектная, учитывающая интересы многих субъектов, межпоколенческая, учитывающая интересы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модель, учитывающая внешние аспекты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олодежи.
4. Основ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этой политики – эт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молодежи, адаптация молодых мигрантов, пропаганда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офилактика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поддержка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утем развития формального и неформ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поддержка молодежных стартапов, развит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5.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расходования средств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являются формальное и неформ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гранты на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субсидии молодежным объединениям, субсидии субъектам РФ на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ых программ,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олодежные ресурсные центры).
6. Управление и контроль над реализацией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епартамент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Минобрнауки. Вместе с тем, данная политика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ях, при учас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детских и молодеж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Росси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 из 41 объединения и 32 региональных молодежных ассоциаций. Кроме того и Росмолодежь участвует в реализаци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В целях поиска путей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 остановился на основных положениях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в докладе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и ее особенностях.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вышеизложенном, хотел бы предложить основные темы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 Россия четко сформулировала цель под названием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олодежи и проводит политик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обретение молодежью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24 лет социаль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ри этом данная политика находится в тесной взаимосвязи с политико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Такой опыт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ен и взаимодополняющим для Кореи,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ла молодежную политику, направленную в основном на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3 до 18 лет.
2.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 5-й программе «Об основах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делан акцент на проведение политик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анализе кажд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В России уже накоплен опыт составления программ по возрас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или реализация с

учетом возраст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В этом плане нам будет интересен обмен опытом и оценками с Россией.

3. Нашей стране также требу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программ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дростков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ил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полезный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в плане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объемлющей работы на уровне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на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субъектами, поколения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4.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существует многоуровневая система 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которой задействованы различные стороны. Развитие и расшир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регионо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ъединений) предоставит молодежи обеих стран 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и стать бенефициарами лучших молодежных программ.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 бы задать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касающихся 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России.

1.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политика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молодежи» на уровне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о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рганизаций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Хотят ли они заниматься реализацией да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насколько активно прилагаются усилия к ее реализации?
2. По каждому предлагаемому сценарию определен бюджет и его источники.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 происходит процесс поступлений средств и их расходование?



◆ ◇ ◆

참 고 자 료 (References)

◆ ◇ ◆

1. 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 2000-2025년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발전(한국어 요약 및 번역본)

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지난 2014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첫 번째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First Global Forum for Youth Policies)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유엔(UN: United Nations)에 소속된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특사 사무소(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s Envoy)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과 함께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1995년 채택된 청소년 세계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을 기념하고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165개 국가 700명의 정부 관료, 청소년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가, 청소년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전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개 국가들 중에서 2014년 현재 62%에 해당하는 122개 국가에서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보다 23개 국가가 새롭게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큰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Youthpolicy.org, 2014). 독일(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스웨덴(아동·노인·성평등부), 덴마크(아동·성평등·사회통합부), 프랑스(보건·청소년·체육부), 싱가포르(지역개발·청소년·스포츠부) 등 여러 국가들이 ‘청소년’을 중앙부처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청소년정책의 8가지 원칙과 실천행동을 채택(Baku Commitment to Youth Policies)하였다. 이에 따라 이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증진에 기반 해야 하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해 정책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증거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인 122개 국가들 중에서도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와 시설 및 인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춘 청소년정책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2012년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정책 결정 참여 부문에서 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s)을 받은 것도 이러한 법,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높이 평가받는데 따른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이 정책 대상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균형 있는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의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소개와 현재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¹⁾.

II.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1.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연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으로 각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청소년관련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국가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시행할 「각 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가 된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성과 분석과 정책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과 영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여 원활한 성인기로의 이행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간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정책 및 정책관련 자원의 집중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1) 이 원고는 김기현 외(2011)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김기현·장근영(2012)의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관계부처합동(2012)의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며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청소년 활동(Youth Activity)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포스트타워 대회의실, 2014. 11.12)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표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

- ◆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13조①)
 -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13조②)
 -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 분야별 주요시책
 -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 ◆ 국가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 (제14조)

자료 : 청소년기본법(제정 1991. 12. 31 법률 제4477호, 개정 2014. 03. 24. 법률 제12535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독자적인 청소년종합대책은 1984년의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86년에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 부문’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청소년정책이 추진된 계기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으로서 1991년 6월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이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부 통합을 계기로 1993년에 문화·체육 등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 업무를 추가한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으로 수정되었고, 1998년에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12)’이 수립되었으며, 2003년에는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2003-2007)’, 2008년에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2013년에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으로 이어졌다.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10년 차 계획으로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은 “덕·체·지의 조화로운 완성”이라는 청소년 상을 제시하였으며, 최초로 청소년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기적·규제적·산발적 처방에 머물던 청소년정책에서 모든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예방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으며, 보편적·예방적·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법률(청소년기본법) 제정과 청소년정책 인프라(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상의 달성을 위해 지육에 치우친 학교교육과 비교해 덕육과 체육을 중심으로 개인성·사회성 수련지표를 만들고 각각의 지표에 따라 수련활동의 영역과 수련거리(활동프로그램)를 제시하였으며, 교육정책과 구분되는 청소년정책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을 수립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청소년정책 예산 중 86.2%를 청소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는 등 수련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청소년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된 육성이나 수련은 정책 대상

인 청소년을 객체화, 대상화하는 한계를 지냈다.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인 수련활동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했으며 극기 훈련이나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수립 이후 5년 단위로 수립된 기본계획 중 첫 번째인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은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정책에서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하였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 2001)」의 비현실적인 목표를 현실화하여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시하였다. 청소년활동 위주의 기본 편제를 가정과 학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국민참여 부문을 보강하여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청소년활동 영역을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영역을 구체화하였다. 1995년 5.31 교육조치를 통해서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되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시·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강화,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 확대·강화,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체제 강화 등이 성과로 평가되며, 1992년부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취약·위기청소년 대응을 강화하였고, 청소년 복지영역을 구체화하였다.

이 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된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소년참여의 대중화·일상화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가 폭넓게 신장될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청소년 주관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대상 중심의 청소년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다.

이어서 수립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은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성인 주도가 아닌 청소년 참여에 바탕을 두고 정책주체로서 청소년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청소년현장 개정(1998년)을 통해 청소년을 미래 사회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주체로 재인식하였고,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였다. 청소년정책 방향으로 청소년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부여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설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중앙부처 중심에서 지역·현장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하였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000년 7월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강화하였다.

이 경우도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 추진체제 구축도 부진하였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연계한 청소년육성시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미흡하였고, 정부 각 부처 청소년정책의 체계적

연계·협력도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육성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능이 취약하였고,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정책 총괄기능이 미약하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다음으로 수립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은 2003년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제2조)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청소년 정책결정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참여제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정비와 관련하여 청소년관계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보강하였으며, 청소년정책 관련 법체계를 내실화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관련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정비하고 청소년육성지원법(지금의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여 기존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또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 개정 등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읍·면·동까지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정책 추진체제의 실질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개발지표 등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입안 및 평가의 정례화 등 과학적 정책 입안을 강조하였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정책추진을 제시하였다.

제3차 기본 계획 역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으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부처 및 지자체 연계협력 구축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제한적으로 접근(취약위גיע층 중심)하였으며, 향후 매체환경의 변화가능성과 신종 유해환경의 등장을 전망하는 등 선도적인 보호정책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청소년 친화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 원스톱서비스가 수요자인 청소년에게 적시성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가치로 OECD에서 논의된 청소년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제시하였으며(Rychen & Salganik, 2003),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2001) 이후 청소년상(덕·체·지)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취약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정책 영역으로 남아있던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이행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대 및 주요 현안인 성인기 이행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처 이관이 이루어져 제4차 기본계획은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으며 2008년 「미래세대 희망플랜,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09~'13)」이, 2010년 여성

가족부로 다시 이관되면서 2010년 「제4차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제4차 기본계획은 수립 당시의 화두였던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청소년의 「여가활용」 차원에 초점을 두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상과 필요 역량을 종합적 차원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노동·복지 등 범부처 사업 연계가 미약하고, 시범사업 수준의 사업위주로 추진되어 보편적 정책으로의 확장이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이전 계획들과는 달리 계획 수립 2년 전부터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1년 만에 걸쳐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 2011년 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김기현 외, 2011)가 추진되었으며 5차 기본계획 초안이 2012년 1월에 마련되었다. 이 초안은 4월까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 학계와 현장 의견수렴을 6개월 동안 가진 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핵심적으로 제안된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특징은 정책 수립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5차 기본계획은 향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을 4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김기현 외, 2011; 관계부처합동, 2012).

첫 번째는 **선제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핵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나 여성정책, 노인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성장을 위한 잠재역량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정책적 투자에 따른 효용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는 교육을 받는 시기이며, 성취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이고, 지적·정신적 성숙의 시기이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는 시기라는 발달적 특성에 고려해 볼 때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선 정부 부처명에서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성인지 예산과 같이 국가재정법에 청소년예산 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

으로 기능 중심 정책과는 달리 각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기 청소년대상 정책 추진을 전기와 중기, 후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이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책이 추진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 추진체계가 읍·면·동 수준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균형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 가족, 건강, 진로·취업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균형 있게 전반에 걸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체 청소년은 핵심역량 강화로, 취약·위기 청소년은 균등기회 보장, 사회적 지원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상 중심의 맞춤형 접근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실질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통계) 및 연구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영향력 평가로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경향성과 욕구에 따라 정책목표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관리·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5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5차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로 제시되어 있다. ‘행복’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 행복’과 연결되는 문제로 궁극적인 정책의 방향은 청소년들의 행복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육성이나 역량과 같은 정책적 지향과 차별화하여 삶의 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미래’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맥락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를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5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역량 강화를, 두 번째는 참여와 권리 증진을, 세 번째는 조화로운 성장을, 네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책과제는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7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신규과제는 30개로 새로운 사업 제안의 비중을 크게 높여 새로운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정책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30, 보완4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

【그림 1】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4. 5차 기본계획의 주요 세부과제

5차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75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5가지의 대표적인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분야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community youth center)**를 통해 청소년 종합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을 활동 정보제공,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 바꾸자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17년까지 전국 3,477개 읍·면·동에 기존 시설 건립 형태를 포함하여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등 다중거주지역에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센터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라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5차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청소년 문화의집을 시군구별로 최소 4개소 이상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바우처’,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학생증’,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생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모든 청소년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부여해 주며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 사회기부 등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때 포인트를 주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도서구입, 문화 활동,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활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도록 해주며 취약·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합적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동시에 위기청소년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청소년들이 비행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카드가 정지되거나 회수하며 돈의 충전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 영국의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나 스코틀랜드의 영 스코트 카드(Young Scot Card)

등 외국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은 청소년의 핵심역량 강화와 유익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참여 혹은 자치활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학생회 등을 포괄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하고 지방의회에서 발언 기회와 청소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10%)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청소년 예산 참여제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청소년의 목소리)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핀란드 헬싱키의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나 「필리핀 청소년의회(Sangguniang Kabataan)」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매우 활성화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간과 SNS를 통해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로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과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직업체험장(communit workplace)**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읍·면·동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 이용시설 및 수련시설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직장체험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체험 대상 직장은 소규모 자영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기업의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제는 청소년과 공동체, 그리고 기업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는 구체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이 자기 생활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성인 및 또래 구성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동체가 청소년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기반이 형성된다. 도시공동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구성원들간의 연대 결여임을 고려하면 이는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공동체에서는 이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미래세대 육성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의 가치와 태도를 전수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기회가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더욱 분명하다. 이 과정은 기업 입장에서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며 기업이 지역사회 공동체 출신의 유능한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 뉴질랜드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 체계의 구성에는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육 체계의 구성과정에서 직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능력이 교육목표로 반영되게 만드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과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조성 사업**

을 제안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 2005)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 도시(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CFC)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요건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법,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 및 행정체계,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예산 확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복지수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 등 성장환경의 건전성, 학교폭력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부모 참여도 등 종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갖춘 지역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Ⅲ.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1.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지 1년 10개월이 경과하였다. 아직 3년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5차 기본계획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청소년정책 사업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진단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시도해 보았다. 중간 점검은 ① 비전 및 목표와 ② 정책 추진방향 등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과제별 점검은 실시 기간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매우 이른 감이 있어 제외하였다. 비전 및 목표는 청소년 삶의 질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책 추진방향은 5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가지 정책추진방향대로 청소년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지를 진단해 보았다.

(1) 비전 및 목표: 청소년 삶의 질 개선 평가

비전과 목표 실현 여부는 투입(input)이나 실적(output)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과(outcome)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5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계획의 종료시점인 2007년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통계 결과를 토대로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증진은 5차 기본계획의 비전에서 제시한 최상위 실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행복감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인 지표인데다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순수하게 정책의 효과로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의 실현은 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행복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국내·외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단위: 점)

구 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년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년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년	110.7	102.6	127.8	96.1	129.3	66.0
2012년	110.1	102.6	133.9	97.7	126.6	71.4
2013년	110.8	108.4	122.9	95.1	129.1	72.5
2014년	111.9	111.1	122.2	98.9	128.8	74.0

주: OECD 국가의 평균 100점(표준편차 10점)을 기준으로 국가별 상대적 점수 도출, 2009년 행동과 생활 양식에 대한 측정지표 차이로 낮은 점수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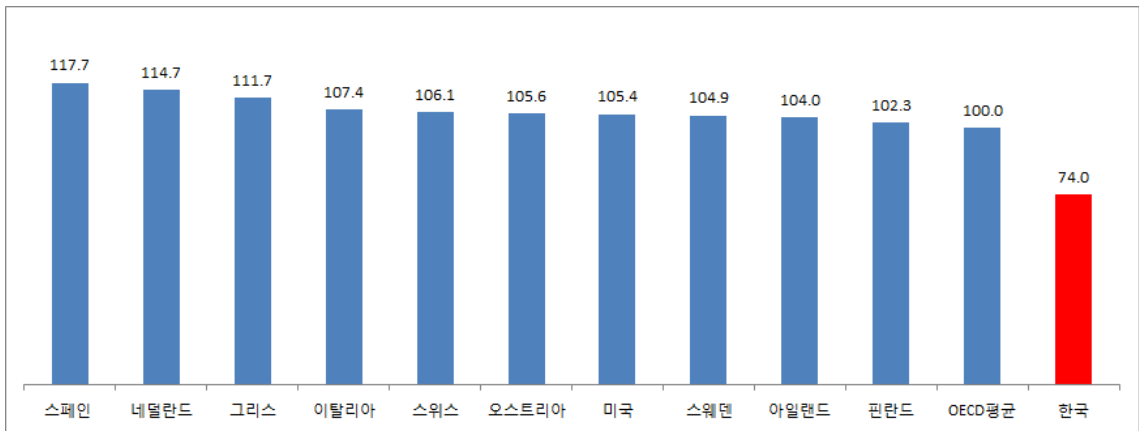
출처: 염유식 외(2014)

먼저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결과이다(염유식 외, 2014).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이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청소년 행복감을 토대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연구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UNICEF)에서 실시한 웰빙지수를 활용해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표 1>은 행복지수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6가지 영역별로 긍정적인 분야와 부정적인 분야의 패턴 자체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 행복과 가족과 친구관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이후 점수 변

화에 큰 차이는 없으나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은 다소 점수가 높아졌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주관적 행복에 대해서 국가 간의 점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지난 2년 간 다소 점수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과의 격차가 3개의 표준편차만큼 낮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 22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염유식 외(2014)

【그림 2】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국제비교(점)

다음으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결과를 살펴보자. 세계가치조사는 산업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동기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1981년 유럽지역을 시작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비교조사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가치조사 홈페이지(<http://www.worldvaluessurvey.org>)에서는 조사 결과 및 데이터(data)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 국가별 조사들은 조사 실시 시기가 차이가 있어 조사 주기별로 6개의 조사주기년도(1981-1984, 1990-1994, 1995-1998, 1999-2004, 2005-2009, 2010-2014)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2번째 주기 조사부터 참여했으며 한국의 조사년도는 각각 1990년(2번째), 1996년(3번째), 2001년(4번째), 2005년(5번째), 2010년(6번째)이다. 보다 포괄적인 국가 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5번째와 6번째 주기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복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 최

근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가별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에 대한 비교는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활용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와 <표 3>과 같다. 한국은 2005년 15세에서 29세 이하의 응답비율이 9.4%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홍콩이나 이집트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다가 2010년 15.7%로 응답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국가들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데 비해서 한국은 15세에서 29세의 행복감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주기 조사에서 전체 비교대상 국가 38개 중에서 청년층의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24개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번째 주기 조사나 6번째 주기 조사에서 국가 평균은 청년층의 응답이 다른 연령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서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2> 세계가치조사(2005-2009) 행복감 응답(매우 행복하다) 결과(%)

국가명	연령집단				국가명	연령집단			
	전체	-29세	30-49세	50세-		전체	-29세	30-49세	50세-
브라질	34.0	40.1	31.5	30.6	이탈리아	18.4	22.3	18.3	16.7
캐나다	46.2	40.7	44.7	50.0	한국	12.9	9.4	15.7	11.0
핀란드	29.5	37.8	33.8	22.1	노르웨이	36.6	35.2	43.4	30.5
프랑스	36.3	45.9	38.1	30.7	서아프리카	42.7	45.5	40.9	40.9
홍콩	6.9	9.0	6.9	5.7	스페인	13.6	24.0	13.5	7.8
헝가리	17.1	28.8	17.3	11.6	스위스	42.0	40.2	43.6	41.2
인도	28.9	33.2	28.9	25.7	태국	40.2	47.2	40.3	36.7
인도네시아	25.2	25.3	25.1	25.2	영국	50.7	45.3	50.8	53.6
이란	18.1	17.7	18.5	19.2	국가평균	28.4	30.5	27.7	27.3

자료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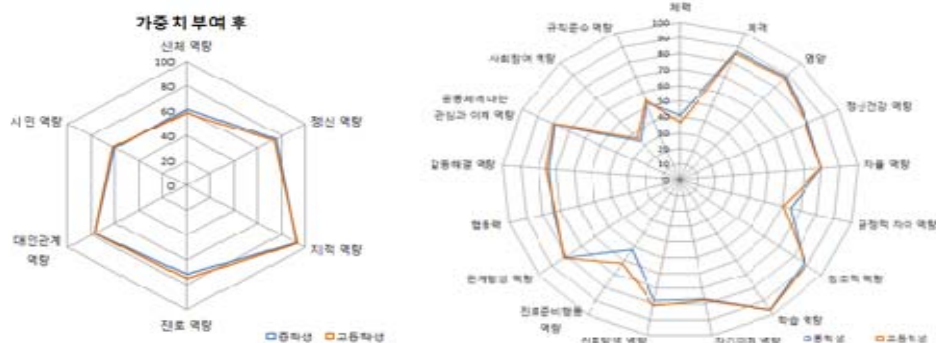
<표 3> 세계가치조사(2010-2014) 행복감 응답(매우 행복하다) 결과(%)

국가명	연령집단				국가명	연령집단			
	전체	-29세	30-49세	50세-		전체	-29세	30-49세	50세-
호주	34.9	37.3	33.4	34.6	뉴질랜드	33.7	34.0	31.3	35.4
칠레	24.4	34.7	22.7	19.7	페루	35.1	39.5	34.0	31.0
중국	15.7	16.1	15.6	15.6	필리핀	49.6	51.8	52.5	44.1
대만	26.0	28.0	23.3	27.8	폴란드	22.2	29.0	21.2	20.0
독일	26.0	26.8	27.9	18.5	러시아	14.8	21.1	15.1	10.6
가나	51.0	54.5	46.9	46.2	싱가포르	39.1	32.2	36.9	45.1
이라크	10.5	14.1	8.6	8.0	스웨덴	40.5	41.4	39.6	40.7
일본	32.3	30.4	35.1	30.9	터키	37.5	34.1	37.9	40.4
한국	15.2	15.7	18.1	11.2	이집트	5.3	6.7	2.5	8.2
말레이시아	56.6	58.6	54.3	58.4	미국	36.1	35.6	35.8	36.5
멕시코	67.5	70.1	68.6	60.3	-	-	-	-	-
네덜란드	31.9	36.3	33.6	30.4	국가평균	32.2	36.2	32.0	29.7

자료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핵심역량에 관한 비교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김기현 외(2010)는 OECD의 2009년 PISA와 IEA의 ICCS 자료를 분석하여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에서 설정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 역량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영역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독일, 벨기에가 1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역량 지표의 경우는 지적 역량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수준은 22개 OECD 국가 중에서 공동 21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갈등관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식수준의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관계지향성(시민참여)이나 사회적 협력(신뢰/태도)에 해당하는 수치는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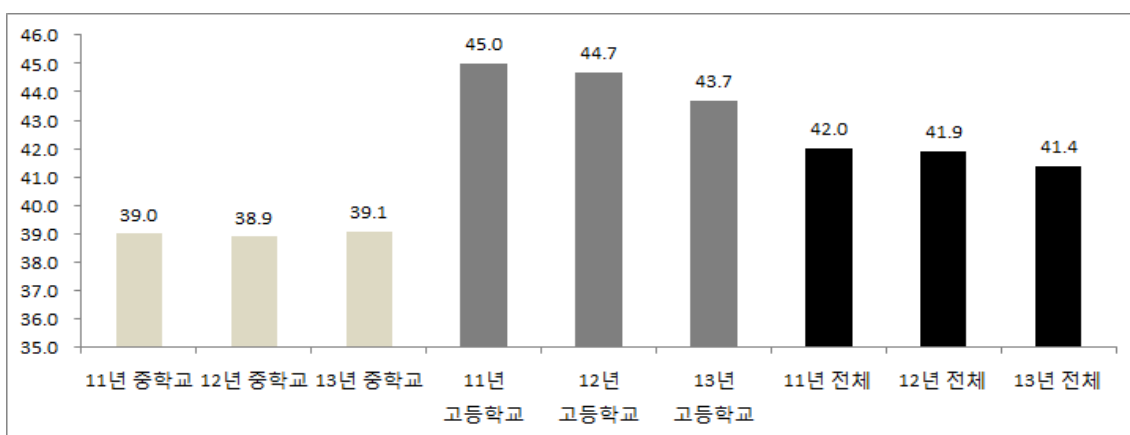
최근 조사 결과로는 2013년에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역량지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김창환 외, 2013). [그림 2]는 학생역량 영역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역량 중에서 지적 역량 수준은 중학생 92.4점, 고등학생 93.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시민 역량은 각각 60.3점, 61.8점으로, 신체 역량은 61.7점, 58.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실태가 현재까지도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자료: 김창환 외(2013)

【그림 3】 학생역량지수 영역별 결과비교(2013)

다음으로 5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 중에서 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1년 42.0%에서 2013년 41.4%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스트레스 인지율을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년 간 0.6%p 낮아져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는 고등학생들로 같은 기간 45.0%에서 43.7%로 낮아졌지만 중학생은 39.0%에서 39.1%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여서 중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3), <http://kostat.go.kr/>

【그림 4】 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추세(2011-2013)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율은 2011년 12.1%로 2017년까지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율의 경우 2011년 20.6%로 2017년까지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흡연율은 9.7%로 낮아졌으며 음주율 역시 16.3%로 낮아져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 전반에 걸쳐서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책방향: 선제적, 포괄적, 통합적, 실질적 정책 추진

먼저 **선제적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제5차 계획에서는 정부 부처명에서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과 같이 국가재정법에 청소년예산 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 부처명에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주관부처인지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청소년정책 주관부처가 변경되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처명에 청소년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한데 부처명 변경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처명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표 4>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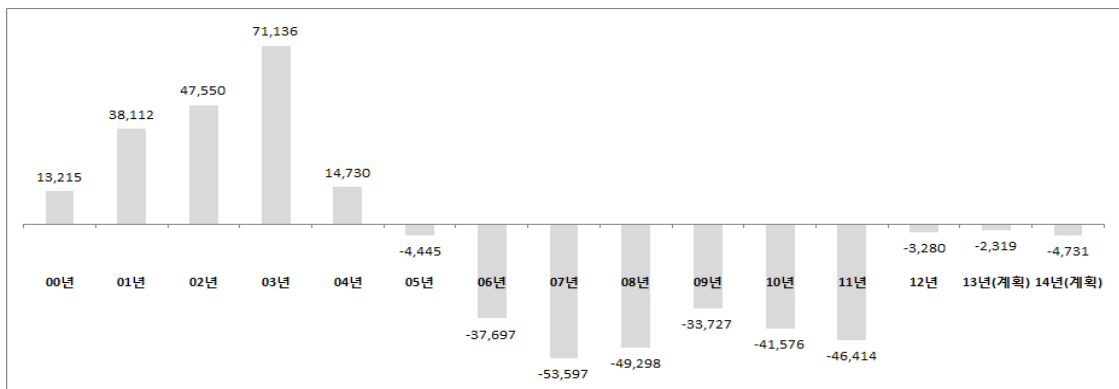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회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17,826	43,045	53,727	62,991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3,845	4,390	3,800	4,710
	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1,580	2,053	3,441	6,31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380	2,962	2,541	2,287 ¹⁾
	일반회계 총계	29,631(17.5) ²⁾	52,450(25.6)	63,509(25.2)	76,291(27.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9,417	41,477	50,550	44,991
청소년육성기금		77,367	61,962	88,951	88,601
청소년 예산 총계		156,415(36.7)	155,889(34.9)	203,010(38.5)	209,883(35.8)

1)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전환되었으나 연간 비교를 위해 그대로 포함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혹은 전체 예산 중 청소년분야 예산 비중을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 각 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개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는 정책 우선순위가 향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어떤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항목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정책 및 역량 강화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외에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여성정책 분야로 분류되는 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항목을 청소년정책에 포함하였다. 동시에 부처 내에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가족정책 분야로 분류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역시 청소년정책에 포함하여 예산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은 2011년 1,564억 원에서 2014년 2,098억 원으로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4).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그림 5】 청소년육성기금 순조성액 변화 추이(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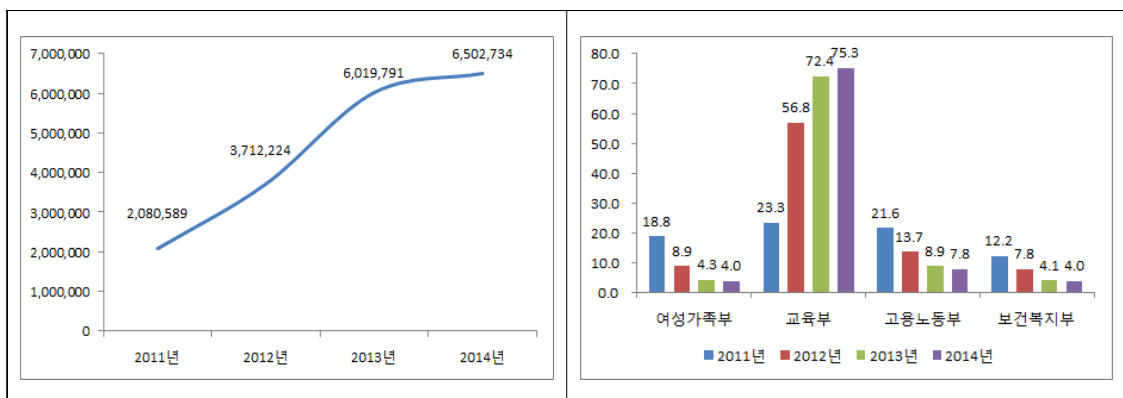
그런데 전체 여성가족부 예산도 증가하였으므로 부처 내 청소년정책 예산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은 2011년 4,263억 원에서 2014년 5,79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정책 예산 비중은 2011년 36.7%에서 2014년 35.8%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줄어들었다. 일반회계만을 놓고 보면, 2011년에 17.5%에서 2014년 27.0%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육성기금 고갈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에 편성해야 할 사업 운영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한 점과 관련된다. 다만, 이것은 기금 운용에 의한 예산 확보보다는 일반회계에 의한 예산 확보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의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이후 부처이관에 따라 경륜사업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자체 사업을 기금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기금 조성액보다 기금 지출액이 커

지는 적자 운영이 시작되었다. 적자폭이 여성가족부 이관 후 2011년 4백 억 규모로 커져 잔액이 천억 원대에서 백억 원대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년 이내에 고갈되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였다. 2012년 다행히 복권 기금 전입금이 크게 늘어나 일단 큰 위기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적자 폭이 20-40억 원 규모로 기금 고갈 위기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경우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청소년정책 주관 부처의 예산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2011년 2조 805억 원에서 2014년 6조 5,027억 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각 부처와 청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제출하는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처와 청에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정책 추진이 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관부처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정책 예산 확대를 주도하는 것은 교육부로 2011년 4,855억 원에서 2014년 4조 8,978억 원으로 무려 821.5%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1, 2014a). 이는 2012년 학교폭력 문제와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자유학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정책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와 청의 예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각 년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그림 6】 중앙부처청 청소년정책 예산 규모(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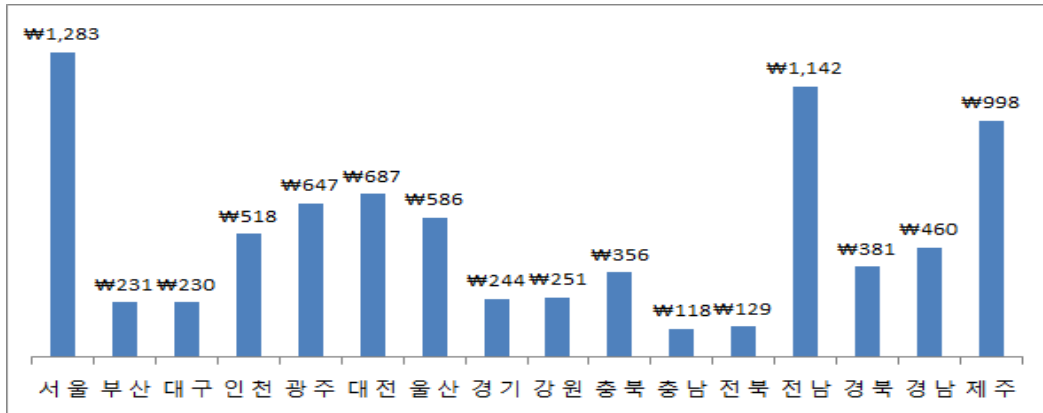
두 번째로 **포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의 총괄·조정기구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5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를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에서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고 정책 대상을 전기·중기·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로 추진하며 활동전달체계를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문화의 집을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여 쉽게 근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괄·조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13.11.28)에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2015년까지 추진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3b). 그런데 이 개정(안)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총괄·조정기구의 명칭에서 총괄이나 조정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지 않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 부의장(여성가족부장관) 및 당연직의 경우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 존틀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격상이 필요해 보이며 총괄·조정기구의 명칭을 아동(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나 장애인(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여성(여성정책조정회의)과 유사하게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부처와 청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인다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2014년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 1인당 예산액 국비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해 보았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전체 청소년인구 수(아동 사업을 같이 추진 중이 경우가 많아 해당 연령을 24세 이하로 정함)를 이용해 지역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시도별 예산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1인당 예산액은 서울특별시가 1,283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142천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충남이 118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시도별로 청소년예산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활동체계 확대 개편이나 생활밀착형 전달 체계 개편(문화의 집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으며 태안 사설해병대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시도 센터에 활동프로그램 신고 관련된 기능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

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활동 안전 기관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2015년 신규로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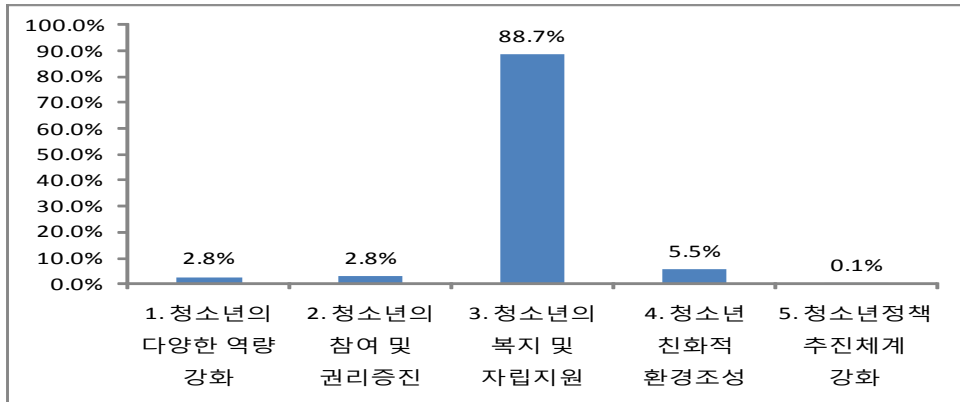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b).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그림 7】 2014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1인당 예산액 현황(2011-2014)

세 번째로 **균형적인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 영역별로 균형 있게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과 2014년도 시행계획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1, 2014a).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의 정책 영역 중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의 예산 규모는 5,399억 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예산(2조 1,843억 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차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정책 영역은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로 1,806억 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예산(6조 5,027억 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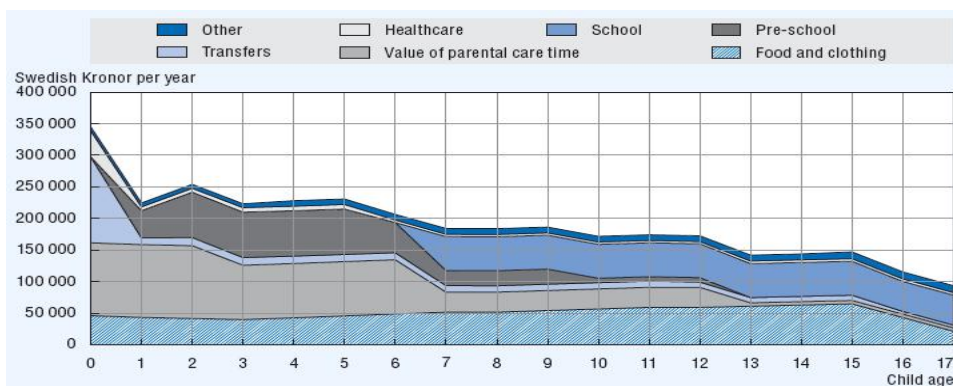
이는 정책 영역 조정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데 진로체험 부분이 활동이나 역량강화 예산 영역에서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으로 옮겨졌는데 5,237억 원에 해당하며 이 부분을 포함하여 4차 계획과 동일한 기준으로 2014년도 예산 규모를 추정해 보면 7,043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사업영역 중 활동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 낮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2014년도 청소년정책 영역별 예산 비중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복지 분야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a).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그림 8】 중앙부처·청 청소년정책 영역별 예산 비중

균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살펴볼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정책 대상인 9세에서 24세까지 재정투자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웨덴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Dalman & Bremberg(1999)는 출생 시부터 17세까지 연령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여 국가의 공식-비공식지출 규모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이것은 스톡홀름 지역에 대한 것이었는데 스톡홀름은 약 9백만의 전체 스웨덴인구 중 약 1백 8십만의 0-17세 인구를 가지고 있다. 지출 영역은 음식 및 의복, 부모의 양육시간에 대한 가치, 교통,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보건관리, 기타 등으로 이 결과에 의하면 가정 지출은 감소한 반면, 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Dalman & Bremberg(1999)

출처: OECD(2009)

【그림 9】 스웨덴의 아동·청소년 연령별 공식-비공식 재정지출 규모(1995)

OECD(2009)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26개 OECD 국가에 대해서 0-17세까지의 연령대에 대한 단계별 공공 지출 규모를 분석한 바 있다. 연령구분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전기(출생 시부터 5세까지, 5세 포함), 중기(6-11세, 11세 포함), 후기(12-17세, 17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대한 분석결과 전기 공공사회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받았으며(전기 대비 중기 7.50배, OECD 평균 2.06배, 전기 대비 후기 8.94배, OECD 평균 2.30배)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취학 전 연령대의 국가 재정 투자로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아교육 중앙정부 예산 2006년 8,242억 원에서 2009년 12,354억 원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자체 예산도 같은 기간 329,598억 원에서 436,81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사업 역시 큰 증가를 하였는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 규모는 2006년 17,236억 원에서 2009년 35,73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9-24세 청소년 예산 확충과 관련하여 연령별 프로파일링을 통한 재정구조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출 구성 분야별 개선할 부분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예산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 활용 전반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의 청소년정책 성과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인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실질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통계) 및 연구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영향력 평가로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경향성과 욕구에 따라 정책목표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관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는 지역 청소년들의 실태와 요구에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가 10년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며 시도 수준에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군구 단위의 지역청소년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시도 산하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부실한 지역 청소년통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으로 청소년요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유관기관 간에 연계협력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향후 기본계획 평가 방안

5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의 경우 결과지표 이상으로 성과지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목표를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역시 비전이나 목표에서 제시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5차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평가지표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12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결과지표에 가까우며 평가준거가 분명하지 않고 목표 설정의 근거 역시 뚜렷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 역시 투입이나 결과지표가 대부분이다(여성가족부, 2013).²⁾

<표 5>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백만원, %)

구분	매우 행복	다소 행복	다소 불행	매우 불행
한국	9.4%	78.0%	11.5%	1.0%
OECD 평균	36.1%	57.0%	5.9%	1.0%

주: OECD 회원국 중 조사에 참여한 21개국의 결과이며 조사년도는 뉴질랜드는 2004년도,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한국은 2005년,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은 2006년도,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2007년도임.

자료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공신력 있는 성과지표 구축과 관련하여 세계가치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본다면 청소년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응답에서 ‘불행하다’는 응답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12.5%→6.9%)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5>는 5번째 주기 조사(2005-2009)의 결과이며 현재 6번째 주기 조사(2010-2014)가 공개되었고 7번째 주기 조사(2015-2019)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시점과 평가시점 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다른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중 성과목표 IV-1 청소년정책 기반 확대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만족도 점수와 청소년 특별회의 및 지도자 대회 만족도 점수('12년 목표 84.5점, '13년 목표 85점)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 수준

국가명	신뢰/태도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체	
	평균	B점수	평균	B점수	평균	B점수	B점수평균	순위
한국	48.30	0.00	13.00	0.00	565.00	0.91	0.31	21
OECD 평균	58.28		32.82		519.23		0.46	13

주: 2009년 ICCS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OECD 가입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 IEA(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

출처 : 김기현 외(2010)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이나 사회성이 국제비교 조사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역량 수준(한국 22개국 중 공동 21위)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31점→46점)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제학업성취도 조사 PISA와 국제 시민성 및 시민교육 조사 ICCS가 2015년에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제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5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 개별 과제 수준의 평가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평가는 기존의 조직 단위에서 과제 단위로 바뀌었으며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게 개별 과제 단위로 투입과 산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가지 원칙, 곧 선제적, 포괄적, 균형적, 실질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시행계획에 관한 수집과 분석을 넘어서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분석평가센터를 통해 이를 분석하여 정리한 자료집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개별 부처별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단위의 실수나 사업 예산의 중복 제시 등으로 인해 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확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면, 연도별 예산 수치 등이 결산과 예산의 차이를 넘어서 큰 편차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가족부만을 놓고 보더라도 예산액이 국회제출자료 등과 차이

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본법의 법 개정을 통해 평가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5차 기본계획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2년 전부터 새로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년 전에는 5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을, 1년 전에는 5차 기본계획 평가를 기초로 6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Ⅲ: 총괄보고서.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장근영·임희진·김혜영·윤옥경(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김기현·장근영 (2012).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김창환·엄문영·김기현·김종민·박종효·박현정·이광현·이상돈(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여성가족부(2011).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2).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3a).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3b). 2013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서울: 대한민국정부.

여성가족부 (2013c). 2013년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 논의안건(안).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연유식·김정마·이미란(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1). 2011년 청소년정책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 2012년 청소년정책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3). 2013년 청소년정책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a). 2014년 청소년정책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b). 2014년 청소년정책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Dalman, C. and S. Bremberg (1999). *Hur satsar vi på barnen? Insatser för barn och ungdom i Stockholms länmätt i kronor* [Which resources are available for children?], Centrum för Barn- and ungdomshälsa, Huddinge.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aris: OECD.
- Rychen, Dominique Simon and Salganik, Laura Hers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Youthpolicy.org (2104). *The State of Youth Policy in 2014*. Youth Policy Press.
http://www.youthpolicy.org/library/wp-content/uploads/library/2014_State_Youth_Policy_2014_En.pdf.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
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정
책
과
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30, 보완4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제5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

○ 제4차 기본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정책 기본 계획으로서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구분	제4차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
과제 구성	4대 영역 12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
기본 방향	● 통합적 청소년정책 - 가족·여성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범부처·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 보편적 청소년정책 - 성·인종·문화·국적·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망 구축 ●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 -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추진	● 제4차 기본계획 연속성 담보 - 가족·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 지향 ● 선제적·실질적 청소년정책 -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 및 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 청소년을 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 포괄적·균형적 청소년정책 -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균형적 지원

□ 향후 5년간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추진

○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 조성

*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의 필수역량 함양」 최우선 과제 설정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권리 증진 중점 추진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과제 보완 및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영역 부각

○ 위가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복지와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 청소년(청년)의 경제활동여건 강화를 위해 청소년(청년)의 진로와 자립 과제 보완

1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추진방향>

- ▶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 ▶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및 인성,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원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등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강화

-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 청소년 활동 영역별(수련·교류·문화활동 등) 역량개발 목표 설정 및 지표별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문화의 집」의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기초단체까지 설치 확대 추진
 - * 지역사회 종합 체험 허브 역할 - '17년까지 시·군·구별 4개소 이상 확대 설치
-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별 특성화(전문화)된 국립청소년시설 확충
 - * 해양환경체험(영덕), 농업생명(김제), 생태체험 및 청소년교류 등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수련시설 안전점검·종합평가 강화(3년→2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정 추진

□ 「청소년희망카드」 도입 및 다양한 체험봉사문화예술 활동 확산 추진

- 「청소년희망카드*」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활동 활성화 유도
 - * 각종 청소년 할인제, 청소년증 등을 통합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활동비로 활용
- 인증 수련활동을 입학전형, 공공기관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청소년지도사 학교 배치 시범 운영 및 자원봉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지원

1-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모든 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양성
 -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이주배경 청소년을 청소년 친선대사로 양성 및 인력풀 관리 운영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 해외 한인단체 네트워크 형성 및 아동·청소년업무 지원 협약
 - 청소년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저개발국 개발협력(ODA) 확대
-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강화 여건조성
 - 남북공동 청소년 현황조사(가치관, 언어생활, 미디어, 여가, 문화, 활동실태 등) 및 「북한 바로 알기」 교육 실시 등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학부모, 교사 대상 인성함양 강화
 - 다양한 한글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교육 지원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및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개설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
-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추진
 -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 및 동아리 운영지원
 -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확대 및 전국 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2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추진방향>

- ▶ 청소년 정책결정과정 참여 활성화 및 매체 다양화
- ▶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청소년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강화 지원
- ▶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 및 청원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가칭 @청소년의 목소리) 개발·운영
 - 모든 일반청소년 대상 트위터, SNS(Social Network Service),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한 정책참여 통로 마련
 - 지역사회 청소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추진
 - 청소년이 제안한 실현 가능 의제에 예산의 일정부분을 배정하여 추진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추진
 -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활성화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단 국제회의 개최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등 청소년 체력 강화

- 청소년 스포츠 활동 여건 개선 및 수면의 중요성 부모교육·홍보
-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확대 및 체육수업 시수(주당 3~4시간)·강사 증원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정신건강지원 기능 강화
- 지역별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 확대 및 청소년 쉼터,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무료 건강검진·치료지원 확대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 정기적 실시 및 정신건강 위도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 마련 등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정신건강 위도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 학습 및 근로시간 등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 조기 정착
- 관계부처 합동점검 확대 추진(광역시 → 시도, 방학기간 → 연중, 15~18세 연소근로자 → 청소년)
- 임금채불 신고체계 운영 등 청소년 권리구제 활동 강화 및 청소년 행복일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등 권리 교육 강화

- 범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 추진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의 보호규정(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마련
- 미디어컨텐츠의 올바른 활용 교육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점검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확대 추진,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 선수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3 ■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추진방향>

-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및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 ▶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
- ▶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및 주거 지원 강화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응 강화

- 다문화 이해 제고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 체계 확립
 - * ①정책지원 전달체계 수립 방안 마련 ②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강화 ③종합실태조사 실시
- ‘레인보우스쿨’의 진학 및 취업 지원 기능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및 한부모·조손가정 등 지원 확대

-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자립비용, 교육비·문화예술체험 바우처 확대
- 장애학생 진로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 농어촌 청소년 학자금 용자 및 농산어촌 청소년 특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 및 아동양육 교육지원 확대
- 청소년 한부모(가족) 상담 및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 확대

□ 정서·작·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강화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및 치료·재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 확대(사·군구별 4개소 이상)
- 「방과후활동지원단」 운영 내실화 - 사업평가, 컨설팅 등 운영모형 개발

3-2.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및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전국단위까지 확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기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 문자상담(#1388), 사이버상담 등 위기청소년 연계망의 지속적 확대 구축
 - 청소년 상담채널 확보 및 멘토폴, 청소년동반자 인력 확대
-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학업중단가출 등 학교 밖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 가출청소년 주거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신설
 - 두드림존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대상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지원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구축 및 진로교육직업체험활동 강화
 - 읍면동 단위 청소년 관련기관과 다양한 기업의 연계를 통한 직장체험시스템 구축
 - 학교급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표준지침 마련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통한 여학생 대상 진로 컨설팅 활성화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용지원센터의 진로상담 서비스 확대
- 청소년(청년) 창업취업주거 지원 확대 및 진로·자립 멘토링 구축
 -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 대학·고교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 지원 강화
 - 청소년(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방안 마련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성세대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4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방향>

- ▶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 가정·학교·지역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
- ▶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및 가족상담·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커뮤니티 세이프 구축
 - 가족상담 지원 강화, 학교에서의 부모대상 청소년기 자녀이해 교육 지원
- 청소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홍보,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복지수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 구획화 등 성장환경의 건전성, 학교폭력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부모 참여도 등 종합적 요소 반영
 - 신도시 개발 시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도입 확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교육환경평가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차단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 및 성범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환경 조성 추진
 - 청소년의 안전한 삶 제고를 위한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안전지표 개선 보완

- 취약계층 범죄예방 시스템 - 「SOS 국민안심 서비스」 도입
-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은폐 시 4대 비위 수준에서 엄중 조치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 배치 확대,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및 법제화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전국 Wee 센터 및 CYS-Net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확대 및 피해학생 긴급구조와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의무 지원
 -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 책무성 제고,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및 비행청소년 예방·회복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유해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비행청소년 대상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예방·회복적 처우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확대

4-3.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감시·관리 강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상대방 본인인증 의무 강화 및 스마트폰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 활성화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 청소년의 건전매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사연수, 교사대상 매체이용지도능력 교육 및 학부모 미디어 교육 등 보호자 지도역량 강화
 -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중독 예방 대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 청소년요금제 제도개선

5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추진방향>

- ▶ 청소년정책 위상 제고 및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및 지역사회 전달 체계 정비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처우 개선
- ▶ 청소년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예산 확충

5-1.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보강
 - *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 평가 등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개편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따른 환류(feed-back) 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도모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 역량 기반 강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위상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부서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 청소년 전담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5-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지원 및 배치기준 강화, 자격검정 개선 추진
- 청소년시설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및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 청소년단체 중심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중심 활동 기반, 지도인력, 프로그램 등 가용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인증 추진을 통한 운영 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학교와의 연계 추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내 청소년단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활동’ 인증 영역을 신설하여 시범운영
-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 청소년단체별 1개 이상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지원
- 청소년단체 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 및 홍보 강화
-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전달 중심기관의 기능 수행 역할 강화
 - * 시도 센터 기능 강화 및 시·군·구 단위까지 전달체계 확장

5-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이 청소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측정하고 정부의 주요정책 중 청소년 차별적 요소에 관한 영향 평가 시범 운영
- 청소년정책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 구축
- 청소년 활동·문화 실태 등에 대한 조사통계 신규 생산 및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정가·비정가)와 비승인국가통계를 아우르는 DB 구축

□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재원 발굴 추진

- 일반회계 예산 연차적 증액, 청소년육성기금 민자 유치 및 신규재원 발굴 등 청소년재원 확충

2000~2025년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발전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 /
‘러시아 차세대’ 모스크바, 2013년

2장. 2012-2025년 러시아 차세대정책: 인적 자본의 발전

2.2.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 발전 시나리오

효과적인 정부 차세대정책 및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 정책의 실행과(2025년까지) 장기적인 국가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자원들을 평가하기 위해 2012 - 2025년 기간 동안 세 가지 차세대 발전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다.¹³⁰⁾

시나리오 1 (수동적)은 차세대 발전과 국가 차세대정책에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것에 근거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세대 인적 자본이 감소된다.

시나리오 2 (보상적)은 차세대 발전과정에서 점증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균등화(보상)하는 것을 지향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세대정책에 의존한다. 이것은 특히 정책의 실행을 위해 비교적 대규모의 금융자원이 도입되는 경우에 반영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는 차세대 인적 자본이 유지되고 (실질적으로) 약간 증가하게 된다.

130) 평가 기간은 2012년부터로 상정하였다. 그 이유는 2012년 및 그 이전 기간에 대해 15세부터 29세까지 차세대의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직업과 무직자 현황(‘로스타트’는 5세 연령 간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0-4세, 5-9세, 10-14세 등), 연령대별 차세대 수, 대학생 수, 중등전문교육시설(단체) 소속 학생 수,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계산에 필요한 기타 자료들에 따른 ‘로스타트’의 가장 완전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들에 대한 예상 산출과 평가를 위해서는 2031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인구수에 대한 ‘로스타트’의 인구통계학적 예측과 203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예측 결과가 이용되고 있다.

시나리오 3 (적극적)은 부정적인 경향을 차단할 뿐 아니라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차세대 발전을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국가 차세대정책 실행을 목표로 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차세대 인적 자원은 명목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성장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함에 있어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대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이 고려되었다. 이처럼, 이들 각각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마련한 203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예측에 부합하는 옵션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개발부의 장기적 예측 시나리오들(옵션들)은 아래 삽입된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러시아 연방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옵션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의 실현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에너지, 과학과 교육, 첨단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러시아 경제의 비교 우위적 발전 및 실현 정도
- 제조업 부문의 혁신적 개선의 강도와 노동 생산성의 역할
-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
- 사업 및 투자 활동의 적극성을 결정하는 제도의 발전, 국가 제도의 효율성
- 소유권의 합법성을 포함한, 사회와 공동체적 정의에 대한 신뢰 강화
- 인적 자본의 품질 개선 강도와 중산층의 형성³¹⁾

이러한 요인들의 실현 정도에 따라 장기적 전망 하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세 가지

- 보수적, 혁신적, 목표지향적(강제적) - 시나리오가 분류된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옵션 1)의 특징은 최첨단 및 중간 수준의 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인 낙후성이 유지되면서도 러시아 경제의 연료-에너지와 원자재 부문의 능동적인 현대화를 토대로 온건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속도에 따르는 것이다. 경제의 현대화는 상당 부분 기술과 지식의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2013-2030년 기간에 3.0-3.2% 정도로 추정된다. 경제는 2030년까지 총 1.7배 성장하고 실질소득은 1.9배 증가될 것이며, 전 세계 GDP중 러시아의 점유율은 2012년 3.8%에서 2030년 3.6%로 감소될 것이다.

혁신적 시나리오(옵션 2)의 특징은 경제 성장의 투자 방향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 시나리오는 에너지원료 복합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와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 부문, 지식경제 등의 건설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나리오는 혁신적인 요소들을 경제성장의 주도적인 원천으로 만들고 2020-2022년의 전환기에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도약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전의 사회적 매개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3-2030년에 러시아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0-4.2%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능가하는 것이며, 2030년 무렵에는 4.3%까지 증가하여 전 세계 GDP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목표지향적(강제적) 시나리오(옵션 3)는 혁신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강제적인 성장 속도, 민간기업의 자본 축적률 증가, 대단위 상품 수출 부문 창출,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2012년 5월 7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6-606¹³²⁾에 명시된 모든 과제들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5.0-5.4%까지 증가될 것이며,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5.3%로 러시아 경제의 비중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들의 차이는 내부 요인, 기업과 **공공정책 개발** 및 거시 경제적 균형 보장 등에서 기인한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현 시기 러시아 경제에서 지배적인 관심 사안들을 반영하며, 새로운 발전 모델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혁신경제 부문에서 자원 및 비즈니스와 고용을 조직하는 수준은 에너지 원료 부문에서의 그것보다 현격하게 취약하다. 혁신경제 부문에서 약 3분의 1의 피고용자와 GDP의 11%가 석유 가스 부문 2%의 피고용자와 GDP의 21%에 상응한다.

혁신적 및 강제적 시나리오는 국가에게나 기업에게 있어 훨씬 더 복잡한 통제모델을 전제로 한다. 이 두 시나리오는 현재 시장의 중기적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첨단 기술과 인적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주요 장벽은 기업뿐 아니라 공공 관리 차원에서 세계적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부족, 조정 메커니즘의 비효율성 등에서 기인한다.

보수적 시나리오에 비해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역동성 속에서 혁신적 시나리오가 지닌 주요 장점은 2015-2018년 이후에 발현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적 시나리오의 중기적 전망에서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질적인 척도 면에서, 특히 인간의 잠재력 발전 영역에서 보수적 시나리오와 차별된다.

성장의 모든 요인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강제적 시나리오는 거시 경제적 불균형성을 가중시키는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장기적 경제 발전 시나리오의 주요 특징

	보수적 (옵션 1)	혁신적 (옵션 2)	강제적 (옵션 3)
사회 발전	2018년까지 사회 영역의 부분적 현대화 및 사회발전 목표들의 부분적 실현	연방 및 지역 차원에서 사회 영역의 대규모 현대화	연방 및 지역 차원에서 사회 영역의 대규모 현대화
	소득 불평등 심화	소득 불평등 감소	소득 불평등 감소
	중산층의 비중이 인구의 약 3분의 1 차지	중산층의 비중이 인구의 절반에 근접	중산층의 비중이 인구의 절반 이상
노동임금에 대한 추가 비용	2015년 이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들의 개선	대통령령 실현에 따른 비용의 비교적 균일한 증가	러시아연방에서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경제주체들로 공공기관들이 집중함으로써 대통령령 실행 비용 증가
	2018년 이후 임금 수준 균등화 유지	2018년 이후 임금 수준 균등화 유지	2018년 이후 사회 및 경제 부문에서 임금이 유럽의 평균 수준에 근접
교통 인프라	2020년 이후 교통 인프라 발전에서 '병목'을 극복	2025-2030년까지 교통시스템의 대대적인 현대화	2025년까지 교통시스템의 현대화
		고속 지선들의 건설	고속 지선들의 건설
경쟁적 우위	석유가스 및 운송 부문 잠재력 이용	기술경쟁력 성장 및 에너지 소비 감소	기술경쟁력 성장 및 에너지 소비 감소
	기계설비 부문의 낮은 경쟁력 유지		
	2018년까지 1.3배 2030년까지 1.9배의 노동생산성 증가	2018년까지 1.4배 2030년까지 2.3배의 노동생산성 증가	2018년까지 1.5배 2030년까지 2.7배의 노동생산성 증가

경제구조의 변화	원자재 부문의 주도적 지배	경제와 수출의 다변화	경제와 수출의 다변화
	에너지 집약산업의 발전	첨단산업 및 지식경제의 점유율 성장	첨단산업 및 지식경제의 점유율 성장
	상품 및 기술 수입 증가		
예산	예산 원칙 준수	연방 예산의 추가 배당 필요	연방 예산의 추가 배당 필요
연금개혁	2015년부터 연금개혁 실현 - 연금 산정 공식의 수정, 연금생활자의 생활비와 연기금소득의 역동성 계산. 이 경우 러시아연방 연기금 예산의 균형성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는 관점에서 연방 예산의 부담을 감소시켜줌		
경제성장의 재정지원	GDP의 0.1 - 0.3% 수준에서 자본의 유입	GDP의 1 - 2.5% 수준에서 자본의 유입	GDP의 3-6.5%수준에서 자본의 유입
	2030년경 인구 부채율은 GDP의 50%	2030년경 인구 부채율은 GDP의 54%	2030년경 인구 부채율은 GDP의 62%
	2030년경 기업 채무율은 GDP의 72%	2030년경 기업 채무율은 GDP의 73%	2030년경 기업 채무율은 GDP의 94%
	경상수지는 균형 유지	경상수지는 균형 유지	경상수지는 GDP의 3-6% 적자
지역적 측면	우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새로운 에너지자원클러스터형성 시 지역격차 증가	지역 격차 감소	지역 격차 감소
		볼가, 우랄과 시베리아 등지를 포함하여 혁신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들을 형성	볼가, 우랄과 시베리아 등지를 포함하여 혁신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들을 형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탄화수소 및 원자재 시장 상황, 기술 수입 등에 대한 의존도 심화	높은 가공 수준을 갖춘 원자재시장과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의 전문화	높은 가공 수준을 갖춘 원자재시장과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의 전문화
		다자간 통합의 잠재력 실현 및 강력한 유라시아지역연합 건설	다자간 통합의 잠재력 실현 및 강력한 유라시아지역연합 건설

131) 이 부분 및 표4 전체에서 강조는 보고서 집필자에 의한 것임.

132)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6 «장기적 국가 경제정책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7 «국가 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조치들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인적 자본, 개인의 인적 자본, 집단적 인간 자본 및 민족적 인간 자본* (주133) 등 많은 정의들이 존재한다.¹³³⁾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 자본에 대해 아래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¹³⁴⁾

인적 자본 - 개인에게 구현된 소득 창출 잠재력에 대한 평가. 인적 자본은 타고난 능력과 재능, 교육 및 획득된 자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차세대 인적 자본**이란 차세대 사회 집단 속에 구현된, 이 구성원들(14-30세의 젊은이들)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고려한 소득 창출 잠재력과 그들이 받은 교육 및 획득된 자격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작업 내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에는 그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 또한 포함되며, 기업 활동의 성공 여부는 기업가정신 훈련이라는 특수교육뿐

»;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8 «공중보건영역에서 국가 정책의 개선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605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 실현 방안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606 «러시아연방의 인구정책 실현 방안에 대하여» 제4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들은 공식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정보 공식 웹사이트 <http://www.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599 «교육과학 분야에서 국가정책 실현 방안에 대하여». 제5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공식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정보 공식 웹사이트 <http://www.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0 «러시아연방의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 보장 및 공동주택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1 «국가행정체계 향상의 주요 방향들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2 «민족 화합의 보장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4 «러시아연방 내 군복무의 향후 개선에 대하여». 제3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공식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정보 공식 웹사이트 <http://www.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3 «러시아연방의 군사력 증강, 군대 형성 및 조직, 군비 현대화 계획(프로그램) 개선에 대하여». 제2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공식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정보 공식 웹사이트 <http://www.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 133) 예를 들어, Shultz T. Human Capital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Y., 1968, vol. 6; Becker, Gary S. Human Capital.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Кендрик Дж. Совокупный капитал США и е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М.: Прогресс, 1976; = (J. Kendrick. The total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functioning. M.: Progress, 1976); Фишер С., Дорнбуш Р., Шмалензи Р. Экономическая теория. М., Юнити, 2002 = (S. Fischer, R. Dornbusch, R. Schmalensee economic theory. M. Unity 2002); Mincer J. The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ccyclc of Earnings: Variations on a Theme. Working Paper of the NBER. No 4838 (Aug. 1994); Mulligan C.B. X. Sala-i-Martin. Measuring Aggregate Human Capital. Working Paper of the NBER, No 5016 (Feb. 1995); Капелюшников Р.И. Сколько стоит человеческий капитал России? Москва: ВШЭ, 2012. = (Kapelyushnikov RI How much is the human capital of Russia? Moscow: Higher School, 2012)

* 밑줄친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러시아어 문헌을 영어로 바꾼 것임-역자

- 134)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010. = (Dictionary of Economics, 2010.)

아니라 경제, 행정, 법률 등에 대한 차세대의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

차세대 인적 자본을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forall KM(t) = \sum_{ij} D_i^j(t) k_i^j(t) N_i(t),$$

$$\text{차세대 인적 자본}(t) = \sum_{ij} D_i^j(t) k_i^j(t) N_i(t),$$

$D_i^j(t)$ - t년도에 j유형의 활동(특정 교육, 기업가정신 등을 보유한 차세대의 직업)을 통해 i연령 그룹이 얻은 소득 / $i=14,...,30, t=2012,...,2025$

$k_i^j(t)$ - t년도에 j유형의 활동에 참여한 i연령 그룹의 참여 지분
 $0 \leq k_i^j(t) \leq 1, i=14,...,30, t=2012,...,2025$

$N_i(t)$ - t년도에 i연령 그룹의 대표자 수
 $i=14,...,30, t=2012,...,2025$ ¹³⁵⁾

시나리오1 (수동적). 이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경제개발부의 예측 중 보수적인 옵션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수동적 시나리오(기존 경향들의 유지)에서 차세대 숫자의 감소는 차세대의 질적 특성의 성장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다. 15-24세 미취학 무노동 차세대의 비중은 같은 연령대 차세대 전체 인구 중 15%까지 증가하며, 25-29세 무노동 차세대의 수는 13% 수준으로 유지된다. 약물 복용과 흡연율이 일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지표는 증가하지 않고, 특히 25-29세 연령층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한다.

대학생 수는 2012년 610만 명에서 2021년 410만 명으로 감소하며, 중등 직업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수는 2012년 300만 명에서 2018년 270만 명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330만 명이 되고, 대학생 수는 43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차세대의 노동 생산성은 더디게 성장하게 될 것이며, 기업 활동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중등 직업교육을 받은 30세¹³⁶⁾ 차세대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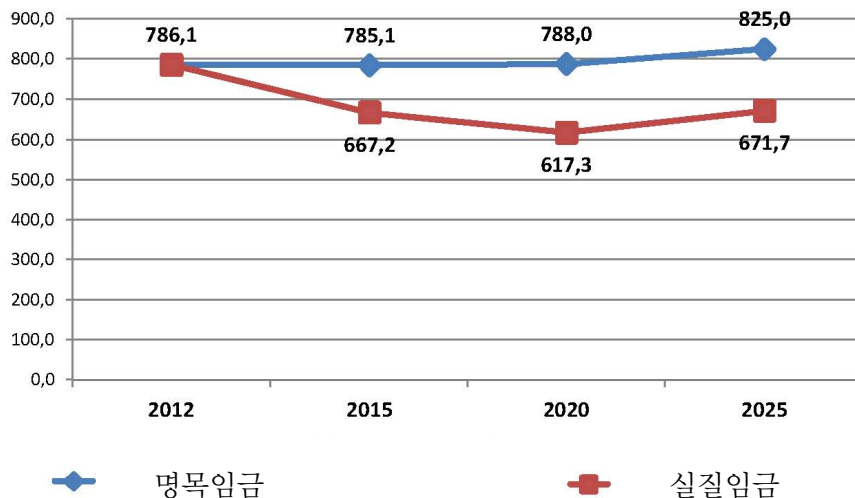
135) 135번 러시아의 차세대 인적 자본은 2012-2025년 기간 동안 매년 계산될 수 있다(2012년과 2025년도포함됨).

수입은 실질적으로 1.46배, 고등교육을 받은 30세 차세대의 경우에는 1.13배(명목상으로는 1.75배), 박사학위를 보유한 30세의 경우에는 1.14배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30세 전문가의 임금은 중등직업교육을 받은 동년배의 임금보다 2025년에 1.35배 많아지게 된다. 2012년에 두 집단의 임금 증가율은 1.6배로, 똑같았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차세대 인적 자본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명목상으로는 상승했지만 실제로는 14.6% 감소하게 되며, 이 경우 2020년 인적 자본의 가치는 2012년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21.5% 감소하게 된다(그림16).

그림16. 시나리오1에 따른 2012-2025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명목상 및 실질적 규모
단위-10억 루블



시나리오2 (보상적)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예측 중 혁신적인 옵션에 부합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는 2025년까지 차세대 인구수가 천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을 현격하게 보상할 수 있고(보상적 시나리오라는 명칭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 인적 자본의 감소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2012-2025년 기간에 14-30세 차

136) 136번 이 교육수준을 지닌 차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

Самые высокие у молодежи, имеющий данный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세대의 질적 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상당부분 차세대정책에 힘입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15-24세의 전체 차세대 연령층에서 미취학 무노동 차세대의 비율이 2012년 12.1%에서 2025년 5.5%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마약과 술, 흡연을 저하를 포함하여 차세대의 건강 지표가 상승한다. 2012년에 200만 명에 가까운 11-29세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비록 빈도수는 다르더라도) 마약을 복용했다면¹³⁷⁾, 2025년에 이 숫자는 백만 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이다. 전체 차세대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마약 복용자의 비중을 1.42배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체육과 스포츠를 즐기는 차세대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보상 시나리오에서는 차세대의 기업능력이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재능 있는 차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과학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차세대 수가 증가할 수 있다. 2021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최소한 4백 2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며(2012년에 610만 명), 2025년에는 4백 40만 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중등직업교육기관들의 학생 수는 2,018년에 270만 명(최소한)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 무렵에는 3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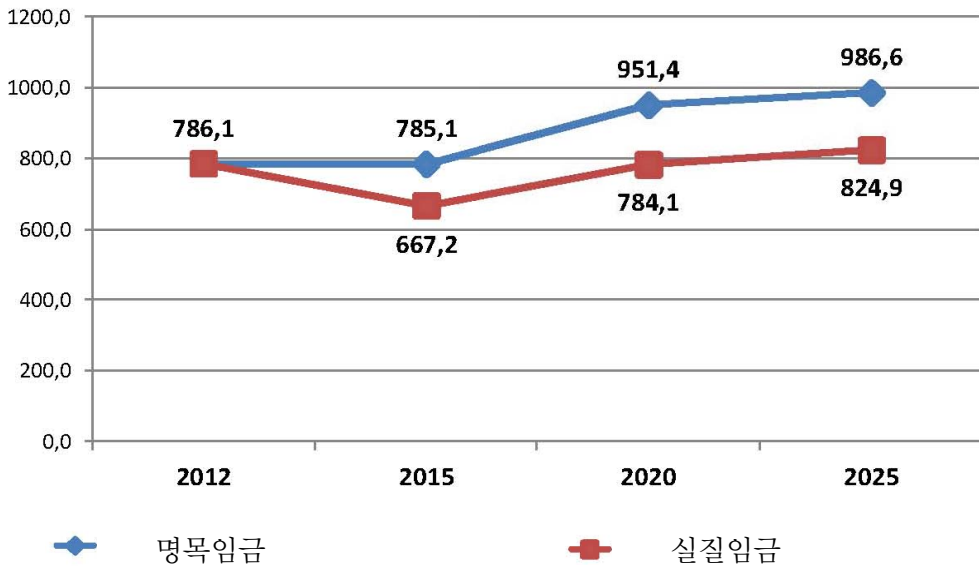
수동적 시나리오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차세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가 혁신적 발전 경로로 이행하는 것과 많은 점에서 연관성을 지닌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에 대한, 차세대 계층에서 노동문화와 노동규율의 성장에 대한 차세대의 더 많은 동기부여의 반영일 것이다. 노동에 대한 태도의 많은 변화는 앞에서 제시된 차세대의 특징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의 결과이다.

일하는 차세대의 평균소득 또한 증가한다. 2025년에는 응용학사과정을 Bachelor of Applied 마친 30세의 젊은 전문가의 실질임금은 2012년에 중등교육을 받은 30세의 전문가가 받던 임금보다 1.86배 증가하고, 2등급 고등교육(석사)을 받은 30세의 전문가가 받는 실질임금은 1.8배 증가할 것이다. 30세 박사학위 보유자의 실질임금은 2012년에 같은 학력 보유자가 받던 임금 역시 같은 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제시된 모든 과정들은 러시아의 차세대 인적 자본이 명목상으로는 쿼터로, 실질적으로는 5%로 성장할 것임을 말해준다(그림 17).

137) 137

그림17. 시나리오 2에 따른 2012-2025 차세대 인적 자본의 명목상 및 실질적 규모
단위-10억 루블



시나리오3 (적극적).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시행한 예측의 강제적 옵션에 해당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 2025년에 차세대 인적 자본은 해당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차세대 인구 수가 천만 명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부정적인 경향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향들이 발전하는 것은 많은 점에서 적극적인 차세대 정책의 결과이다. 미취학 무노동 15-24세 차세대의 수는 2025년에 전체 차세대 중 3.5%로 감소하게 된다. 보상적 시나리오에 비해 다양한 차세대 연령 그룹에 의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은 훨씬 더, 80만 명으로까지 감소될 것이다. 이것은 차세대 인구수 감소를 고려하면 거의 1.8배나 감소하는 것이다. 11-14세의 어린이들이 약물 복용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차세대의 범죄율은 2012년에 55%에서 2025년에 45%로 감소하게 된다.

차세대 모든 연령층에서 흡연이 더욱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담뱃값의 상승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및 이 금지규정 위반 시 높은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흡연의 폐해에 대한 캠페인 덕분이다. 범죄의 예방은 젊은이들의 범죄율이 2012년에 55%에서 2025년에 30-35%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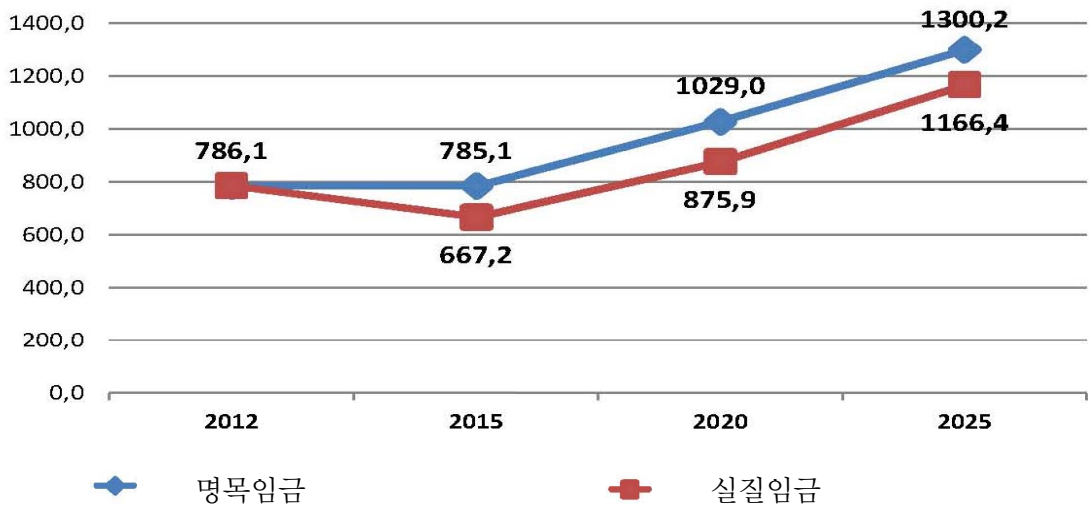
보상적 시나리오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시나리오에서는 차세대정책이 젊은이들을 기업가정신 교육과 차세대 창업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준다. 재능 있는 차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이들이 과학과 예술 분야에 대거 진출하도록 보장해주고, 이전에 타 국가들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일부 젊은 학자들이 귀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025년에 대학생 수는 4백50만 명, 중등교육전문기관 재학생의 수는 3백40만 명이 된다.

차세대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고취되며, 노동문화와 노동 규율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점에서 적극적인 차세대정책 및 차세대 계층에서 비정규, 비공식 교육이 발전한 결과가 될 것이다.

차세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2012년에 중등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응용 학사과정을 마친 30세 젊은 전문가의 실질임금은 2025년에 2.3-2.4배, 고등교육(석사)을 받은 30세의 전문가의 실질임금은 2.5배, 박사학위를 보유한 30세 학자의 실질임금은 2.6배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세대 인적 자본은 명목상으로도 1.65 실질적으로도 1.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그림18).

그림18. 시나리오 3에 따른 2012-2025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명목상 및 실질적 규모
단위-10억 루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2015년까지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감소가 관측된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부정적인 경향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상적 시나리오와 적극적 시나리오에서 차세대정책의 실현 방안들은 2015년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줄 것이다. 차세대의 자질이 향상되며(교육, 건강, 문화, 노동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 차세대 기업가정신의 발전), 그것이 곧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 적극적인 차세대정책 시나리오이다.

차세대 인적 자본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차세대정책 비용 지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비형식 및 무형식 교육
- 2) 청소년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보조금
- 3) 청소년 단체 보조금
- 4) 차세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러시아연방 주체들에 대한 보조금
- 5) 차세대정책의 인프라 건설(청소년 자원 센터)

2015년과 2016년을 위해 계획되어 있던 7억 루블 규모의 국가 차세대정책 자금을 유지할 경우, 수동적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보상적 및 적극적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세대 및 차세대정책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세대의 자질이 현격히 향상되지 않고서는 차세대 수의 감소 현상을 상쇄시킬 수 없다. 이것은 차세대정책의 내용과 질에 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2.1에서 러시아에서 차세대 발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작업이며 차세대정책이 부문 간, 지역 간 공조의 성격을 지녀야한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이것은 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미가 큰 노력들이 헛되게 낭비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정센터를 설립해야 하며(‘러시아 차세대’가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음), 차세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두 개의 열쇠’정책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교육과 의료, 군대, 연금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많은 문제들은 차세대의 요구와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세대 인적 자본의 유지(시나리오 2) 및 증가(시나리오 3)를 위해서는 차세대 발전과 관련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구현되어야 한다.¹³⁸⁾ ‘2013-2020년 교육 발전’이라

138) 2017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러시아 차세대의 발전’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으로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국가프로그램의 하부 프로그램 4 ‘차세대의 사회적 실천 참여’는, 유감스럽게도, 내용적으로나 자원 면에서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차세대의 사회화라는, 필요하지만 극히 제한된 과제로 귀결시킨다.

보상적 시나리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인적 자본을 유지하는 데에만 연방정부 예산 중 연간 최소 15억-20억 루블 규모의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금은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등록된 차세대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러시아 연방 주체들에서 차세대정책의 인프라를 형성(5억-7억 루블)하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 자금의 일부는 2017년까지 차세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주는, 차세대 발전(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지출되어야 한다.

적극적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로 2015-2016년 연방정부 예산 중 4억 5천-5억 루블의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 자금은 차세대발전을 위한 복합적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연방 차원의 차세대 인프라(차세대자원센터 네트워크) 건설, 앞에서 언급된 차세대 조직들의 지원(1억-1억5천 루블)¹³⁹⁾, 차세대와 함께 일하는 간부들의 자질 향상, 프로젝트 활동의 확대와 2015년부터 아래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차세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주는 차세대발전(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 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출된다.¹⁴⁰⁾

1. 차세대 고용 - 차세대의 구직 및 주로 18-24세 차세대의 상담을 지원해주는 차세대 고용 대행기관 시스템 구축(졸업 후 첫 구직활동, 군 제대 후 구직활동,

139) 차세대와 어린이 단체들의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데 필요한 예산 자금 계산의 예.

1. 지원금은 법질서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세대 및 어린이단체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됨.
2. 지원금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5인 직원 단체 단위로 현 지출비용을 보상해주는 금액 내에서 제공됨.
3.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 규모는 연간 250만 루블 가량이다(5인 직원 단체 기준시 직원 전체 월 급여 25,600 루블): 급여를 위해 30.2%를 적립, 그 외 단체운영비 20%).

현재 러시아연방에서는 대략 3,054개의 연방 및 지역 차세대와 어린이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76억 3,500만 루블이다(3,054*250만 루블). 이 단체들의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적 보상은 다른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타 목적들을 위해 할당될 수도 있다.

140) 복합적 프로그램의 목표 리스트는 그 프로그램의 설계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육아휴직 후 구직활동). 법적인 문제들을 상담 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 젊은 심리학자, 경제학자, 매니저, 변호사 - 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법률 클리닉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효율적인 차세대 고용과 청년실업 감소를 통해 2025년까지 차세대 인적 자본이 10-15% 성장할 수 있다.

2. 차세대 이민자들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내적 외적 생활조건에 적응하는 문제 - 이 문제에서도 러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차세대들의 심리적 및 법률적 지원, 차세대 사회 교육과 러시아어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에서는 재정을 지원 받으면서도 그 진행 작업에 대해서는 조정과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차세대 조직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한다. 차세대의 (노동, 교육 관련) 영토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자원의 보다 합리적인 분배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 역시 증가하게 된다(2025년까지 4-6%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3. 건강한 생활양식, 마약과 알코올과 담배가 없는 삶에 대한 캠페인. 이 활동은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부상과 장애로 인한 사망률 증가로 차세대 경제활동 인구수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이나 알코올 소비로 인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책임감이나 규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노동생산성의 손실을 줄임으로써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를 보장해준다(2025년까지 10-12%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4. 차세대 사이에서 범죄의 예방. 이 활동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차세대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곧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2025년까지 3-4%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5. 재능 있는 차세대 지원. 이 활동은 차세대의 질적 특성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학과 예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유입되게 함으로써 차세대 인적 자본을 증가시킨다(2025년까지 5-5.5%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6.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 향상. 이 활동은 차세대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미처 습득하지 못한 전문적이며 사

회적인 능력의 결함을 보상해주고, 차세대에게 노동에 대한 책임감과 규율, 노동문화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2025년까지 10-12%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7. 14-16(17)세 차세대의 직업 성향 조직 및 교육궤도 구축 지원. 이 활동은 차세대가 미래의 전공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장해준다(2025년까지 2-2.5%의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

8. 차세대 창업 지원. 이 활동은 차세대의 독립정신과 이니셔티브의 계발을 보장해주고 차세대의 자기실현을 촉진시킨다(2025년까지 5-7%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9. 차세대정책 분야에서 정부-민간 협력관계 발전(차세대 노동 잠재력 계발을 위한 추가 자원 유치 및 활동의 질과 목적지향성 제고, 공동프로젝트 관리의 질 향상). 2017-2025년 차세대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출 규모는 차세대 발전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옵션의 선택 및 이 선택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통합 투자프로그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3. 러시아 장기(長期) 국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모델

국가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축될 것이다(보고서 2.2 참조).

- 2025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장기적 모델
-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혹은, 최소한으로, 유지)을 보장해주는 모든 요인들을 포괄하는 복합적 모델
- 연방,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든 부처와 기관을 포함하는 기관 간 모델. 이 모델의 활동은 어떤 차원에서든 차세대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여기에는 연방정부 차원도 포함된다: 러시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체육부, 문화부, 국방부, 외교부, 내무부, 농업부, 교통부, 지역개발부, 재무부, 경제개발부, 법무부, ‘러시아청소년’ 및 기타 부서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4절 참조).
- 지역 간 모델. 차세대 인적 자원 개발은 공간 지향적이며 러시아연방의 영토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차세대의 영토교육과 직업 이동성 문제, 새로

은 거주지에 적응하는 문제, 주택 정책, 사회 보장과 교육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 다 주체 모델. 즉, 차세대정책 구현과 연관된 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모델(차세대 자체의 다양한 그룹 - 연령, 인종, 종교, 지역 - 포함)
- 세대 간 모델. 러시아연방 다양한 세대들의 이해관계 고려.

이밖에도, 이 모델 내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의 외적 측면들(예를 들어, 러시아 차세대가 타 국가들로 교육 및/또는 노동 이민을 가는 경우와 타 국가 차세대가 러시아연방으로 교육 및 노동이민을 오는 경우).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는데 있어 주요 과제는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러시아 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러시아 차세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모델은 ‘러시아청소년’, 러시아연방 차세대 주체 업무 관련 기관들, 차세대 조직들에 근거한다. ‘러시아청소년’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 정책 실현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은, 만일 이 결정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차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교육, 보건, 문화, 체육과 스포츠, 고용, 연금보장, 주택정책, 이민정책 등의 문제), 모든 의사결정 수준(연방, 지방, 자치단체)에 차세대(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두 개의 열쇠 정책’을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든 차세대정책의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여러 단계와 다양한 창구를 통한 재정 확보, 정부-민간 협력관계와 청소년기금 모금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차세대정책의 모델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적어도 그 구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재정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차세대정책의 예산 조달은 아래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차세대 조직들의 기능 수행 및 발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차세대정책의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기관 자금
- 제도적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고 차세대 단체 현장(인프라)에 새로운 활동가들이 출현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 기금
- 차세대, 차세대정책과 차세대환경(인프라)의 전략적(장기적) 개발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기금

지출비용의 부분적 상환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보고서

2.2 참조) 기관 기금, 즉 러시아의 지역들에서 차세대정책 인프라의 ‘운영 상태’에 따른 지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쟁을 토대로 확보되는 프로젝트 기금은 예산 수단 확보를 위한 차세대단체들의 경쟁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단체 활동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 경쟁들 중 하나가 바로 차세대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얻기 위한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및 지역 수준에서 동시에 차세대 자문(컨설팅) 구조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조는 차세대단체들이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구현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정부-민간 협력관계라는 조건 하에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민간 파트너가 있다는 점이 차세대단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경쟁적 토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동 자원마련 프로젝트는 차세대단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차세대 기금 모금의 실례를 마련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기금 모금의 실제과정을 배우는 일이 독자적 프로젝트 중 하나의 조항이 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프로젝트는 모든(대부분의) 차세대단체 간부들이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연방의 모든 주체들에게서 일관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기금은 현존하며(등록된 차세대단체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형성 중인 차세대정책의 인프라에 의거하여 차세대 인적 자본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2017년부터 ‘러시아 차세대 발전’이라는 장기적 국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현한 것이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에 있어 핵심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2025까지 러시아 연방 차세대 발전 전략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핵심이다.

현재, 예를 들어, 러시아 체육부는 차세대 스포츠 발전을 위해, 러시아 내무부는 차세대 범죄 예방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정책 모델에서는 ‘러시아 차세대 발전’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토대로 이 모든 과제들의 실현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며, 이 경우 모든 과제들은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예산 보조금) 규모가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과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지원금의 규모는 해당 과제의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2.2에 제시되어 있듯이, 차세대정책 재정지원의 규모와 모델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향들을 유지할 경우, 차세대 인적 자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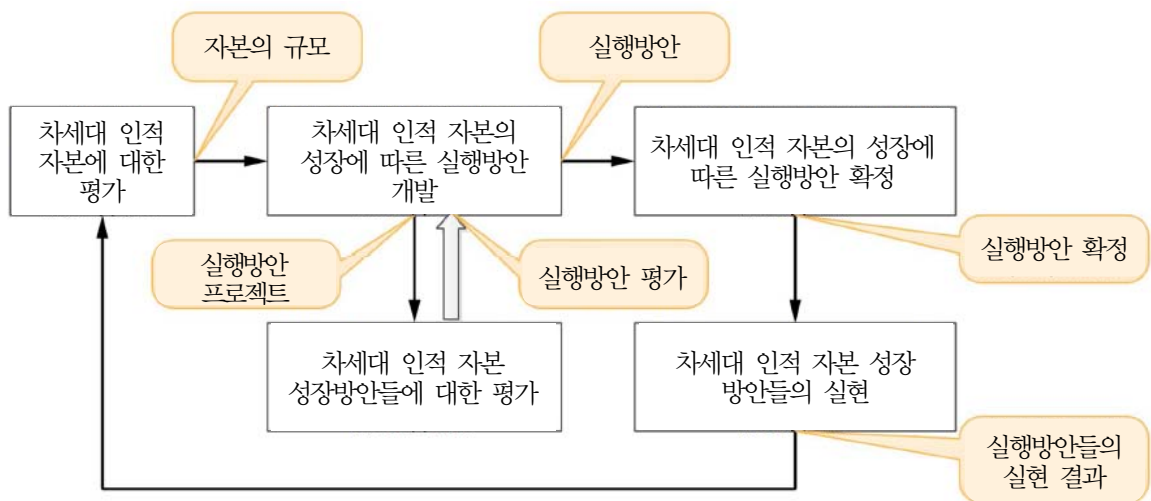
13년(2012-2025년) 동안 명목상으로는 겨우 5% 성장하고 실제로는 14,6% 감소한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 차세대정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필요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않는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부재할 경우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감소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점증하는 노동력 부족과 연관된 젊은이들의 임금 증가로 인해서 옵션에서 일정 정도 부정적 경향들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상적 시나리오에서 비용은 이미 2015-2016년에 증가했고, 차세대 조직들에 대한 지원은 차세대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보상해주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차세대 인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보장해줄 수 있다. 따라서 2015-2016년에 차세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미 체감적으로 증가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만 차세대 조직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2017년 이후에는 ‘차세대 발전’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이 실현되기 시작하며 차세대 인적 자본이 충분히 크게 –명목상으로는 1.65배, 실질적으로는 1.5배 – 증가될 수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 차세대 인적 자본의 평균 증가액이 한 해에 428억 루블이 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가령 한 해에 최소한 100-120억 루블 규모의 총비용이 차세대정책에 소요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준다. 이 경우 초기에는 75억 루블까지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고(보고서 2.2 참조), 그 이후에는 이 기금의 일부가 민간기금으로 대체되면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재정을 지원하고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과 차세대 환경 발전을 보장해주는 예산 자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차세대정책 모델의 틀 내에서 정책실행의 일반적인 순서는 그림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19. 새로운 차세대정책 모델의 틀 내에서 정책실행의 도식



국가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차세대 인적 자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 **액션1.** 평가가 이루어지고 차세대 인적 자본의 규모가 결정된 후 - **액션2,** 그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된다(기관 차원의 결정들, 프로젝트들, 프로그램(프로그램들) - **액션3.** 고려되고 있는 도식의 틀 내에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로는 아래의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 차세대단체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해결책 마련 - 이러한 지원을 위한 원칙과 절차, 할당 가능한예산(예산 보조금)의 규모¹⁴¹⁾

-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단체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분배되는 일련의 프로젝트 마련, 혹은 주도적 프로젝트들의선별

- ‘차세대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개발, 혹은 차세대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지향하는 여타 국가 프로그램들의 하부 프로그램 개발(차세대정책 형성과 실현 원칙들의 단일성, 해결 과제들의 복잡함, 구체적 방안들의 실현에 대한 통제,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옵션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개별 방안들

차세대 인적 자본 발전(유지)과 관련하여 그것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중립적인 방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 **액션4.**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 실현 방안들은 그것이 지원해주는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과 일치하게 된다.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해야 하므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구현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차세대단체들의 발전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등록).

이 시스템은 차세대정책의 특정 실현 방안들을 검사할 수 있는 특별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풀로 구성될 수 있다. 전문가 활동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법령에 의해 승인된 ‘국가 차세대정책 실현 방안 검사 규정’(조건부 명칭)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실현 방안들에 대한 평가와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를 보장해주는 방안의 선별이 이루어진 후에는 구현될 예정인 일련의 방안들(제도,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승인된다. - **액션5.** 이후에는 방안들이 실현된다. - **액션6.**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용 (가령, 임금)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예산 보조금이 할당된다.

- ‘차세대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들이 구현된다(프로젝트 활동은 프로그램의 틀 안에 전적으로 집중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 차세대단체와 개별

141) ‘러시아 차세대’에 등록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세대단체들은 동등한 규모 혹은 상이한 규모의 예산자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 내용이 국가 (예산)지원에 대한 특별한 상황에 반영되어야 한다.

차세대 대표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이 선별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프로그램 내에는 특정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금이 비축된다).

구체적인 방안들의 구현 결과는 목표 -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 - 달성에 따라 평가된다. - **액션7.** 이 평가 수행 후에는 이전에 승인된 제도와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 방안들의 모든 구성요소가 구체화 된다.

수행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제도적 방안의 틀 내에서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등록된 몇몇 차세대단체의 등록이 말소되고(실질적으로 ‘러시아 차세대’ 산하 조직들 중에서) 예산지급이 취소되거나, 등록은 유지되지만 재정 지원은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등록된(자격을 인정 받은) 차세대단체들에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새로운 단체들이 편입(인가를 얻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 예산 보조금 형태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승인된 프로젝트들의 구성이 수정될 수 있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구성의 수정 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수정의 결과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구현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프로젝트들은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라는 과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새 프로젝트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구현을 승인받게 된다. 실행방안의 완수 혹은 ‘러시아 차세대’ 산하에 등록된 차세대단체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조직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때 차세대정책 인프라의 항구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산 지원이 증가하거나 (차세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쟁 결과에 따라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새로운 단체들을 등록하는 일은 해마다 진행될 수 있다. 또한 3년에 걸쳐 예산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은 차세대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회계감사는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위해 해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등록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 밖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변경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실행 방안이나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일은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라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할 수 있다.

차세대(차세대정책) 발전 분야 정부 부처의 활동 또한 실행된 방안들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종 결과 -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 - 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러시아 체육부의 경우에도 다양한 스포츠 대회에서 차세대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의

숫자가 아니라 체육과 스포츠가 차세대 전체의 건강에 기여한 바에 따라, 그 결과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이 증가했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교육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적어도 5개의 러시아 대학들이 전 세계 상위 100개 대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교양과 전문성 경쟁력)이 높아져 러시아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 교육기관들이 세계 지표에서 상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능 있는 차세대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고, 지원을 받은 숫자(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가 아니라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에 기여한 바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차세대 인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은 차세대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 중 하나 일 수 있지만, 그 효율성 역시 평가를 받고 사회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그 틀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사회-경제적 결과, 즉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모델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러시아 사회 발전에서,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차세대정책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이 모델은 또한 사회, 문화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연방과 지역 차원에서 채택되는,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미래의 주체로서) 차세대 발전의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다루게 되는 결정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은 전략적 결정들과 정부 정책 전반에서 우선순위 선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